

2017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생활예술, 말하기 · 듣기 · 쓰기"

사랑방문화클럽

발행인	박명숙
편집인	이영진
기획총괄	박지훈
기획진행	소준철, 오희영, 이현정, 조성란, 현승인
글	강미선, 배셋별, 양시원, 이영애, 조윤수, 조진희
사진	정경일(PopCon), 정동주
디자인 및 인쇄	제이드컴
발행일	2017. 12.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www.snart.or.kr



사랑방의 노래

성남에는 어딜 가나
문화클럽의 모임이 있다네.
그 모임에는 누가 구경꾼이고 누가 주인공이 없다네.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구경꾼이 되어 준다네.
시민들은 100년 후를 노래한다네.
예술시민의 도시, 성남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창조가들이 탄생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랑방 문화클럽이 꽃피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네.



Contents

00 여는 글 2017 사랑방문화클럽

Part 1. 지금 여기, 사랑방문화클럽

- 00 사랑방 인터뷰1 조윤수가 묻고, 박유진이 답하다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탄생한 사랑방슈퍼스타”
- 00 사랑방 인터뷰2 이영애가 묻고, 제갑정이 답하다
“생활예술을 하는 가족, 생활예술로 만난 가족”
- 00 사랑방 인터뷰3 조진희가 묻고, 고웅이 답하다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생활예술을 직업으로 삼다”
- 00 사랑방 좌담 사랑방네트워크를 점검합니다

Part 2. 모두 모인 한마당, 함께 즐거운 축제

- 00 모두 모인 한마당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소개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취재기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집단취재기
- 00 함께 즐거운 축제 경기생활예술클럽한마당 취재기



Part 3. 마을과 함께하는 사랑방문화클럽

- 00 청춘을 노래하는 마음
- 00 모두를 위한 퍼레이드, 모두를 위한 연습
- 00 우리동네 생활예술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
- 00 축제 속 마을

Part 4. 프로젝트북을 만드는 일

- 00 '생활예술, 말하기 · 듣기 · 쓰기'를 잘 하는 방법

Part 5. 사랑방문화클럽 정보

- 00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을 위한 팁!
- 00 사랑방문화클럽 참여 동아리 목록



‘도시를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다’

사랑방문화클럽

‘도시를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다’에서 시작한 사랑방문화클럽은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자율적 문화예술 클럽 네트워크입니다. 문화, 예술, 소통이 공존했던 우리의 전통 사랑방 공간과 매우 흡사하다하여 명명한 사랑방문화클럽은 성남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클럽의 친목 도모, 유대관계 증진, 정보 교류 등을 지원하고 동호회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공헌 활동까지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7년 성남의 원도심과 신도심의 융합을 위해 생활예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예술 도시-성남’을 꿈꾸며 총 38개의 클럽으로 출발한 사랑방문화클럽은 2017년 현재, 음악, 미술, 공예, 기행, 문학 등 241개 클럽들이 중심점이 되어 생활예술 네트워크 확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된 클럽들이 기획·주도하는 합동 발표의 장입니다.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 약 일주일간 개최되는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매년 3월,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축제를 준비합니다. 전시팀과 공연팀의 두 축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축제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와 미술관은 물론, 율동공원, 중앙공원, 분당구청 등을 무대로 각자 클럽의 특징에 맞춰 퍼레이드, 전시, 공연 체험 등을 준비합니다. 올해 성남시청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진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은 사랑방문화클럽들이 서로 단합하여 기획한 공연, 전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성남 지역 곳곳에 직접 방문하여 봉사하는 문화공헌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가입된 클럽 외에 2개 이상의 신규클럽과 팀을 구성하여 공헌 활동을 기획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동일·융복합·창작으로 장르를 구분해 전문 코디네이터를 투입하여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규클럽의 발굴, 클럽 활동 참여를 위한 장벽 낮추기, 기존 가입 클럽의 동기 부여, 다각적 방식의 공헌 활동 고안 등 목적을 가진 간접지원방식의 사업으로 직장인 동아리 대상 강사 지원, 다문화아카데미의 교육 및 전시, 찾아가는 도시락콘서트, 클럽데이 등의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프로젝트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프로젝트〉은 성남의 문화예술 클럽 간 네트워크 활성화, 클럽과 동네의 네트워크 확대라는 목표와 동시에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클럽들 스스로 기획하고 재단이 실행을 돕는 형태였던 문화공헌프로젝트는 클럽회원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결과들을 토대로 해마다 그 실행 및 지원방식을 변화·발전시켜왔습니다.

2017 사랑방문화클럽

2017년, 올해로 11년을 맞은 사랑방문화클럽은 회원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한 사랑방문화클럽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성남시의 대표적인 축제와 지역 문화 대표 브랜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생활예술을 통한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쓴 한 해였습니다.

2017 사랑방프로젝트북 생활예술, 말하기 · 듣기 · 쓰기

사랑방프로젝트북은 한 해의 사랑방문화클럽의 과정을 시민이 직접 취재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북입니다. 2017 사랑방프로젝트북, 〈생활예술, 말하기 · 듣기 · 쓰기〉는 사랑방문화클럽의 현재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젝트북을 만드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을 중심으로 시민에디터를 선정 후, 약 6개월간 진행한 ‘생활예술 기획/기록 워크숍’을 통해 생활예술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학습하고, 직접 관찰 · 취재함으로써 생활예술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북은 6개월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 시민에디터들이 사랑방문화클럽의 현장을 취재하고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생활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을 직접 선정하여 인터뷰 · 좌담을 진행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본 프로젝트 북은 또 하나의 생활예술인 셈입니다. 부디 2017 사랑방프로젝트북 〈생활예술, 말하기 · 듣기 · 쓰기〉을 즐겁게 읽어주시고, 생활예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Part 1.

지금 여기, 사랑방문화클럽



사랑방 인터뷰

조윤수가 묻고, 박유진이 답하다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탄생한 사랑방슈퍼스타〉

이영애가 묻고, 제갑정이 답하다
〈생활예술을 하는 가족, 생활예술로 만난 가족〉

조진희가 묻고, 고웅이 답하다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생활예술을 직업으로 삼다〉

좌담

사랑방 네트워크를 점검합니다

조윤수가 묻고, 박유진이 답하다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탄생한 사랑방슈퍼스타

일시 2017년 9월 25일

장소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2층 회의실

인터뷰 / 글 조윤수 시민에디터

사진 정경일



시민예술가들의 활동 중심이 된 사랑방문화클럽이 성남에 자리 잡은 지 올해로 11년. 성남에 걸출한 스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의 주인공 박유진님은 그중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사랑방스타로, 사랑방문화클럽이 시작한 2007년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클럽의 멤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넘어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끼와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일까요. 올해의 한마당 사업 중 하나인 '우리 동네 생활예술 스타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첫 번째 생활예술 스타로서 그녀를 내세웠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 성장해 온 박유진님을 만나 시민 예술가로서의 삶과 철학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 조윤수**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현재 활동하고 계신 클럽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박유진** 활동하고 있는 클럽으로는 2005년에 입단한 <로망스기타합주단>이라는 클래식기타 클럽과 통기타 클럽 <기타애락>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은 아니지만 용인에 있는 <보헤미안>이라는 또 다른 통기타 팀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기타로 활동을 하다 보니, 제가 박자감이 약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약한 박자감을 극복하기 위해 한 4년 전부터 드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습만 하다 보니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웰컴밴드'라는 초등학교 동문 밴드입니다. 동문 밴드에서 드러머를 구하길래 "실력은 안 되지만, 드럼 칠 분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하고 용감하게 자원했어요. 작년 4월에 밴드 결성 후, 활동한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네요.
- 조윤수**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에서 공연하시는 걸 보니 흥이 넘치시던데, 그런 끼와 재능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 박유진** 글썄요. 어려서는 제가 끼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학창시절에는 무척 내성적이었어요. 조용하고 나서는 거 싫어하고. 결혼하고 아이들한테 동화책도 읽어주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그런 끼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서 '내 생활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미용, 양재, 수영, 스포츠 댄스, 클래식기타, 통기타, 드럼, 탭댄스. 그리고 삼십대 후반에 스포츠댄스를 시작하면서 춤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리듬을 타다보니 '춤이 별건가? 내 흥에 겨워 즐겁게 추면 춤이지' 이런 생각에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춤을 춰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앞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다 보니 아시는 분은 저보고 '춤의 여왕'이라고 하세요, 부끄럽게도. 삼십대 중반에 시작한 수영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알려줬죠.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양재나 미용과 달리, 수영은 운동 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요. 사우나를 같이 하면서 말 그대로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울림의 미학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은 살면서 열 번 바뀐다'고요. 저도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성격이 점점 변한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도 스스럼없이 하고, 나중에 기타를 배우면서는 본격적으로 그룹에 소속되어 활동하니 성격이 더 활발하게 된 것 같아요.
- 조윤수** 기타클럽활동을 하면서 성격이 더 활발해졌다고 하셨는데, 기타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 박유진** 중학교 때 기타를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사당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남성시장이라고 큰 전통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카세트와 LP판을 파는 음악 가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타 학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보러 가다가 거기를 지나쳤는데,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배우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를 졸랐어요. 그 당시로는 큰 금액인 3만원의 강습비를 내고 처음 배운 곡이 양희은의 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한 달 정도 다니면서 쉬운 코드부터 시작해서 기타 스트로크도 배우고 했는데, 그게 저의 음악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계속 기타에 미련이 남아 있었는데, 기타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기회가 생긴 거죠.
- 조윤수** 기타에 대한 사랑의 씨앗이 그때 심어졌군요. 현재 참여하고 계신 '사랑방문화클럽'의 기타 동호회인 <로망스기타합주단>과 <기타애락>는 어떤 곳인가요?

사랑방 인터뷰1

박유진 야탑동 중앙도서관 옆에 여성문화회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명칭(성남시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지만, 2002년에 제1기 문화 교실 개강식을 하였는데, 제가 거기 기타반에 1기생으로 등록했어요. 그때 지금의 <로망스기타합주단> 지휘자이신 박종대 선생님을 만나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5년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5년에 <로망스기타합주단>이라는 이름으로 박종대 선생님 지휘 하에 클래식기타 합주단이 창단 되었고, 그 때부터 창단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오래 된 만큼 <로망스기타합주단> 단원들과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같이 지내고 있어요.

<기타애락>도 초기부터 함께 했습니다. <기타애락>은 2005년에 창단되었어요. <라푸노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2010년에 '제1회 라푸노스 하우스콘서트'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죠. <기타애락>도 처음에는 클래식기타로 시작한 핑거스타일의 연주 단체였어요. 연주하다 보니 <로망스기타합주단>과 특별히 다른 게 없어서 작년부터 새로운 선생님을 모시고 스타일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핑거스타일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다른 다양한 장르도 해보면서요. 그러다보니 점점 통기타로 바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윤수 각 클럽 구성원의 성별과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박유진 두 클럽 모두 여성분만 있어요. <로망스기타합주단>이 연혁이 더 오래되었기에 여기엔 육십 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사십대 몇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주로 오십대 분들입니다. <기타애락>에는 <로망스기타합주단> 활동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타애락>은 홍경숙 단장님 외에 열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일곱 명 정도가 <로망스기타합주단> 단원이기도 합니다.

조윤수 <로망스기타합주단>에서는 단장도 역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박유진 <로망스기타합주단>에서는 단장으로 2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누구나 한 번쯤 책임자 역할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단체를 이끄는 어려움도 경험해 보고 단체의 소중함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원들이 2년마다 돌아가면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에게 감사한 것이, 제가 단장을 할 때도 그리고 지금 단장님 지휘 하에도, 저희 단원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따르고 참여하려 애써주세요. 그래서 저희 단체 활동이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수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에서도 활동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박유진 저희 <로망스기타합주단>의 박종대 선생님이 '사랑방문화클럽' 1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셨어요. 박종대 선생님께서 제 성격이 적극적이고 쾌활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한테 운영위원을 한 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초기 운영위원회는 정황상 본인의 단체를 갖고 계신 선생님이나 단장님 같은 분들이 맡으셨는데, '사랑방문화클럽'이 순수 시민생활예술단체라는 취지를 살리다 보니 '시민'이 기획하고 창조하는 시스템을 지향했죠. 그래서 박종대 선생님도 제게 운영위원을 해보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운영위원에서 활동하던 게 지금까지 부위원장과 팀장 일을 했어요.¹⁾

1) 4대(2010년) 부위원장(공동) / 5대(2011) & 6대(2012) 사랑방문화클럽축제추진위원회 대외협력팀 / 7대(2013) 부위원장 & 사랑방문화클럽축제추진위원회 시민문화클럽박람회팀장(공동) / 8대(2014) 사랑방문화클럽축제위원회 경기생활문화클럽한마당팀장 / 9대(2015)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위원회 사랑방퍼레이드팀 활동)



그래서 저는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애착도 크고요. 사랑방축제에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 역할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사랑방축제엔 관심을 갖고 늘 참석을 해요. 몇 년 전에는 울동공원에서 소나기 쏟아지는 밤에 미친 듯이 춤도 추면서 폐막식 날 같이 놀아도 봤어요.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즐거운 추억인거죠. 올해 축제를 보면서는 너무 뿌듯했어요. 많은 단체가 함께 하니 규모도 커지고 화려하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노력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제 일처럼 기쁘더라고요.

조윤수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뿐만 아니라 올해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에도 많이 참여하셨던데요.

박유진

2017년도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에서는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100인의 올림'을 비롯해서 '우리 동네 생활예술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 '다인수요음악회', 그리고 '멋으로! 놀이로! 예술로! 3색 클럽데이'에 참여합니다. '다인수요음악회'는 매달 셋째 수요일에 공연을 하는데, 이제껏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왔어요.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음악을 연주합니다. 제가 사회도 보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드럼과 켈레를 치기도 해요. <다인> 사람들이 워낙 재능이 많으세요. 다들 악기 한두 가지는 기본으로 하고요. 어떤 분은 플루트,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노래까지 모두 잘하세요. 다인 멤버가 열여섯, 열일곱 명 정도 돼요, 12월에 첫 정기연주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쁜 일정으로 금년 1월부터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조윤수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고 계신데, 생활예술 활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 있나요?



박유진

네. 저는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회 보는 것도 처음 해봤고, 일반인들은 서기 어려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연주도 해봤고,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처럼 큰 홀에서 무대 경험도 해봤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일도 하고요. 사랑방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점점 자신감도 붙는 거죠. 저는 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못 한다고 하지 말고 일단 해보라고요. '자존심은 잠깐이고 그걸 내려놓으면 인생살이가 편하고 즐거워진다.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그걸 잠깐 내려놔 봐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편한지 아느냐'고요. '내가 즐겁고 남도 즐거우면 그게 나중에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저는 뭐든지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면 인생이 즐겁게 바뀐다고 믿어요.

조윤수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에서 기획한 '우리동네 생활예술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주인공이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그리고 어떤 매력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유진

우선은 엄청 부담스러웠죠. 내 이름을 걸고 공연을 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공연이라 부담은 되지만 '이러면서 또 하나의 공연을 해보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내가 소속된 단체와 나와 연결된 단체 사람들만 와서 공연해도 한 프로그램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랑방슈퍼스타' 공연을 해보기로 결정했죠. 솔직히 주변에 끼와 재능이 넘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누가 저한테 뭘 해보자 하면 빠지지 않아요. 저한테 제안한 분도 어렵게 섭외를 하는 걸 텐데 하는 생각에서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누가 뭐 할래?' 이러면 '네~ 저요!'하는 스타일이에요. 도전해보자는 생각이죠.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공연에서는 클래식기타, 통기타, 노래, 그리고 드럼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보여줄 생각이에요. 욕심 같아서는 탭댄스를 제대로

배워서 텡 퍼포먼스도 넣고, 커플 스포츠댄스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번엔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잘 준비해서 다시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조윤수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박유진 기억에 남는 일이에요? 글썄요...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사회 봤을 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축제를 두 번 했어요. 오페라하우스가 규모도 크고, 시청처럼 열린 공간이 아닌 닫힌 공간이라 신경 쓸 일들이 많았어요. 축제 공연 인원도 많고 홀도 크다보니 무대를 들락날락하면서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랑방축제는 정말 매 해 어땠는지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날 정도로 모든 축제가 다 특별해요. 그런데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공연은 이런 저런 이유로 특히 더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날 울동공원에서 축제 폐막식 할 때. 미친 듯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비옷 입고 우산 쓰고, 그 순간을 즐기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그 밖의 다른 날들도 항상 즐거워서. 다 기억에 남아요. 저는.

조윤수 여러 추억들을 남기면서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 하셨네요.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나,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나요?

박유진 우선, 성남아트센터에서 공간을 내어준 것에 감사해요. 앙상블시어터나 큐브사랑방처럼 지역 생활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시에서 만든 건물을 이런 활동에 사용하니 세금을 돌려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남아트센터 공간 사용은 '사랑방'에 가입된 클럽들에게 주어진 대단한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사랑방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성남문화재단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있어요. 저는 클럽들 간에 소통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합으로 하는 연주 같은 거요. 지난번, 중앙공원에서 있었던 '100인의 울림'은 기타팀, 만돌라팀, 플라멩코 댄스팀이 콜라보해서 공연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공동 작업을 위해 클럽들이 만나다보면, '사랑방문화클럽' 안에 이런 클럽도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공연도 다양하고 풍성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사랑방문화클럽'에 소속된 다양한 클럽들이 더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합니다.

조윤수 마지막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박유진 '사랑방문화클럽'은... '반쪽의 나'다. 제가 40대 초반에 갓 만들어진 '사랑방'에 들어왔어요. 이제 '사랑방문화클럽'이란 저랑 똑같이 10년 더 나이를 먹었죠. 제 인생의 3분의 1을 '사랑방'이란 함께 했어요. 어렸을 때는 인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아이들 세계니까. 성인이 된 이후의 인생 중 반을 '사랑방'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반쪽의 나'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조윤수 정말 마지막입니다. 박유진에게 '사랑방슈퍼스타'란?

박유진 '사랑방슈퍼스타'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이영애가 묻고, 제갑정이 답하다

생활예술을 하는 가족, 생활예술로 만난 가족

일시 2017년 9월 26일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인터뷰 / 글 이영애 시민에디터

사진 정경일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은 즐거움만이 가득할 것 같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가사와 직업 활동 등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과 클럽 활동을 병행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지원해주는 가족들의 존재가 가장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인 성남만돌린오케스트라의 단장 제갑정님은 성남에서 그 누 구보다 적극적인 생활예술하고 있는 분으로, 자신의 활동의 원동력이 바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남편 정 동기님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생활예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예술을 통해 만난 클럽원들 역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제갑정님에게 생활예술 을 하는 가족, 그리고 생활예술로 만난 또 하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영애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갑정 안녕하세요. <성남만돌린오케스트라>의 단장 제갑정입니다.

이영애 만돌린이라는 악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갑정 어느 날 하얀 머리를 하신 할머니 한 분이 만돌린 곡을 연주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만돌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연주하셨던 곡이 Mozart의 ‘Komm, Liebe Zither.(오라! 귀여운 만돌린)’이었어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었네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故 이석기 선생님의 지도 아래 만돌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영애 만돌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콘트라베이스도 하시더라고요.

제갑정 단체를 하다보니까 만돌린 하면은 기타가 필요하고, 또 기타를 하는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콘트라베이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트라베이스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가끔 저에게 성남만돌린오케스트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도 해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단원 대부분이 성남만돌린오케스트라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영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단원들과 함께 하다보면 관계도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제갑정 친지들보다 더 자주 보는 관계죠. 일주일에 두 번 연습을 하니깐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연습하면서 연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위안을 받고 스스로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픈 기억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죠. 함께 해 왔던 분들이 갑자기 먼 곳으로 가셨을 때의 충격, 무엇보다 함께 해왔던 분들과 헤어졌을 때, 그럴 때 많이 마음이 아프죠. 좋은 추억들은 함께 연주 여행했던 순간들이죠. 항상 그 느낌을 공유하며 웃고 그러죠. 또한 여러 연주회들을 통해 함께 공유하는 순간들이 늘어나는 것도 행복하죠. 우리 호흡이 딱 맞아서 이 소리를 정확하게 냈을 때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게 연주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연습해왔기 때문에 좋은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 것들이 좋아요.

이영애 그래도 많은 인원이 있는 만큼 단장으로서 클럽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갑정 저희 중에 프로페셔널한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에요. 취미로 가볍게 시작하신 분들이 더 많죠. 악기는 어떤 악기든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연습하고 즐기면서 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도, 결과도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해요. 당연히 노력도 많이 해야 하구요. 저희는 벌써 17년간이나 함께 음악을 해 온 친구들이고, 음악이라는 것은 합주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 쌓이는 시간만큼 저희의 우정도 더 돈독해지는 것을 느껴요.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주민, 사회 소외계층, 문화를 직접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연주를 해 드리는 활동도 있어요. 그 분들에게 다가가 연주를 하고, 그 분들이 그 순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때도 작은 감동이 전달되죠. 이런 활동들이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생활 예술 영역에서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당, 축제 하고 난 뒤에 나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니까 우리끼리 연주하고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행사에 참석하고, 거기서 나오는 조그만 지원금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요. 서로 웃고요. 다 하는 소리가 '정말 우리 기분 좋게, 즐겁게, 재밌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이영애 함께 활동하면서 단원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갑정 서로 배려해주는 걸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아는 연인의 사이처럼 악기를 통해서 그런 게 느껴져요. 함께 하는 단원들의 긍정적인 힘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받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 거를 옆에서 바로 느끼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일 가까이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옆에 있다는 게 저한테는 행운이죠.

이영애 이번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사업에서 '100인의 울림'이라는 행사를 기획·진행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제갑정 클래식 실내악 장르인 클래식 기타와 만들어진 사랑방문화클럽 안에서 대부분 단일팀으로 활동해요. 정기 연주회도 주로 단일팀으로 기획돼요. 그래서 여러 팀이 함께 하는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2016년에 했던 'Memory'라는 공연도 그런 취지에서 진행했었던 행사였어요. 그 공연에서 여러 악기를 하는 다른 팀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하모니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기획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같은 곡이라도 클래식 기타와 만돌린이 함께하는 연주는 그 느낌이 다르니까요. 클래식 기타 5개 팀, 만돌린 3팀, 플라멩고 무용과 플라멩고 기타 팀, 퍼커션 등 총 11개 팀이 한 마당 무대를 꾸미게 됐고요. 100여 명이 현의 울림으로 파장을 일으키듯, 성남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들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래서 생활 예술의 울림이 곧 생활 예술의 꽃이 되는 계기라 생각했어요.

이영애 다른 클럽등과 함께 공연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갑정 성남만돌린오케스트라 단장이면서,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위원을 하게 됐고. '100인의 울림' 팀장을 맡고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소통'이었어요. 서로 소통하며 다른 팀들과의 교류로 또 새로운 '울림'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노하우는 '소통'이에요.

이영애 <성남만돌린오케스트라>의 향후 계획이 있나요?

제갑정 사실 저희가 유로페스티발을 가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 단원들이 조금씩 적금을 모으고 있어요. 유럽의 독일의 부르크잘에서 4년마다 열리는 페스티벌인데, 서류를 넣었어요.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우~ 지금 메일을 받았는데, 4000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 중에 100개의 오케스트라가 신청을 하고. 아마 우리 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될까봐 걱정을 조금 하고 있어요.





인터뷰 도중 제갑정님의 남편 정동기님이 인터뷰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영애 안녕하세요. 정동기 선생님. 선생님께도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현재 선생님도 사랑방문화클럽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원래부터 악기를 다룰 줄 아셨나요?

정동기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중학교 때는 음악 선생님도 없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상하게 음악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비고사였나? 거기엔 음악과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음악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 기타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머리에 든 것도 없지, 손가락도 안 움직이지. 고생을 많이 했죠. 악보를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숙달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간간히 그걸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악보도 안보고 할 수 있는 레퍼토리가 몇 곡이 있어요.

이영애 그럼 처음에 기타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제갑정 정말 남편은 음치, 박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조건이었어요.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가 ‘한 번 해볼래?’ 하니까 ‘한 번 해볼까?’ 하더라고요. 정말 의외였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권유했던 것을 후회할 정도였어요. 정말 남편은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연습했어요. 그러가지고 우리 큰 애가 ‘아, 박치, 음치도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아빠를 통해서 느꼈다고 해요. 현재 남편은 <고기리 기타동아리>에 소속되어있는데, 모임 안에서 기타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응용은 잘 못하지만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유형이에요.

이영애 <고기리 기타동아리>는 어떤 모임인가요?

제갑정 악기를 하는 부부들이 모여서 연주 하는 동아리예요. 저는 만돌린을 하고, 남편은 통기타를 쳐요. 지금 함께해 온지 8년째네요. 우리 <고기리 기타동아리>에서는 부부단원 중 누구네 아이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축하연주를 해주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혼주가 같이 연주를 하고, 벌써 세 번째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전통처럼 되고 있어요. 그때 연주를 했던 곡이 ‘양지바른 우리의 언덕’이에요.

- 이영애 정동기 선생님께서 아까 악보도 안보고 할 수 있는 곡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곡은 어떤 건가요?
- 제갑정 남편은 '동백아가씨' 그게 최고죠.
- 이영애 선생님께서 동백아가씨 었나봐요. (웃음)
- 제갑정 부산사람이에요. (웃음)
- 이영애 악기 말고 두 분이서 함께하시는 다른 취미 활동이 있나요?
- 정동기 최근에는 같이 스포츠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갑정 전혀 안 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1년 정도 했네요. (웃음) 단 한번도 결석을 안했어요. 남편과 한 시간동안 웃으며 땀을 짖 빼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 이영애 따님들도 악기 연주를 한다고 들었어요.
- 제갑정 딸이 둘인데, 큰 딸은 취미로 피아노, 작은 딸이 플루트를 연주했어요.
- 이영애 선생님께서 악기를 배우라고 권유를 한건가요?
- 제갑정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큰 애한테는 피아노를 하라고 하고, 남편에게 통기타를 하라고 하고, 작은 애 같은 경우는 큰 애가 플루트를 사놓고는 안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걸 작은 애가 불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족끼리 '아빠 환갑 때 가족 음악회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 정동기 칠순잔치 때나... 기회가 되면 웨밀리 콘서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작은애가 플루트를 전공을 했지, 그 다음에 큰 애는 피아노를 기본적으로 하고 하니까 대충 맞추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기회가 되면 스포츠 댄스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장르가 여러 가지 입니다. 저는 연주보다는 입이 더 발달이 되가지고, 연주는 못해도 노래는 잘 부릅니다. (웃음)
- 이영애 웨밀리 콘서트 정말 기대되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악기를 하나 이상은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제갑정 선생님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 제갑정 남편은 제가 처음 활동할 때부터 참 많이 도와줬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해도 해주고 양보도 해주고요. 큰애는 아빠에게 일일이 악보를 복사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취미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가족의 힘이 제일이죠. 딸들은 조금 더 생산적인 곳에 에너지를 쓰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결정적일 때는 다들 도와주죠. 가족의 도움 없이는 어렵죠. 고맙고 감사해요.

조진희가 묻고, 고웅이 답하다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생활예술을 직업으로 삼다

일시 2017년 11월 10일

장소 서울문화재단

인터뷰 / 글 조진희 시민에디터

대학생 때 우연한 계기로 사랑방문화클럽을 경험하고 생활예술의 매력에 푹 빠진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뷰의 주인공인 고웅님입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생활예술로 정한 고웅님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생활예술인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의 구성원에서부터 시작한 고웅님이 기획하고 지원하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생활예술인이자 지원자인 고웅님에게 생활예술에 관한 철학을 들어보았습니다.



조진희

처음 사랑방 클럽은 어떻게 알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나요?

고웅

대학교 때 사랑방문화클럽 모니터링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계기로 사랑방문화클럽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학과가 성남문화재단과 MOU를 맺었고 문화의 현장에서 일하는 재단 직원들에게 강의를 듣는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그때가 2008년도였습니다. 당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성남의 문화정책에 대해 강의해 주시던 박승현 부장님(현재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장)의 모습도 기억이 나네요. 사랑방문화클럽 모니터링을 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분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강의를 해 주시다가 “지금은 이렇게 강의를 듣는 학생과 강사로 만났지만, 언제 이곳에서 같이 일할 지도 모르는 인연일 수 있다.”라는 말이 제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던 유진룡 교수님께 방학이 되기 전에 찾아뵙고,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 쪽 허드렛일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사랑방문화클럽 모니터위원회에 신청하여 면접을 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단에서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할 때도 잠깐씩 봉사활동을 하며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졸업 전에 취업계를 내고 이벤트기획사에 입사해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그때 마침 박지훈차장님(현재 문화기획부 부장)께서 그만둔 다음날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매니저를 뽑고 있는데 같이 일할 수 있냐는 물음에 바로 달려갔지요. 그렇게 2년 동안 6회와 7회 사랑방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현재도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활동하시는 사랑방 클럽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웅

현재 <하이파이브>라는 아카펠라 그룹에서 베이스로 활동 중입니다. 아카펠라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 장르이다 보니 함께 할 사람 다섯 명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중 베이스는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5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사랑방축제로 일할 때 당시 사랑방 기획실장님이 <하이파이브> 클럽지기셨어요. 기획실장님과 전화통화로 업무를 보다가 딱 베이스에 맞는 목소리라며 축제 끝나고 한번 놀러오라고 하셨죠. “네.”라고 대답하고 한두 번 놀러 가다 말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벌써 5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혼도 연주합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때 배운 사물놀이의 리듬감이 있어서인지 자연스럽게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카혼도 연주한지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조진희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맡고 계신 업무는 어떤 파트신가요?

고웅

서울시가 생활문화를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정했는데요,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에서 생활문화주간 축제를 기획하는 팀에서 막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기획하는 축제는 ‘아티팟 카니발’입니다. 아티팟(ARTipot)은 아트(Art) + 장소(Spot) + 차주전자(Teapot)의 합성어입니다. 모든 것으로 어디서나 예술하며 누구나 교류하는 서울시 생활예술 사업입니다. 여태까지의 생활문화·생활예술 사업은 동아리, 장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결국 활동하는 동력이 있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지요. 하지만 장르라고 할 수 없는, 그리고 동아리 뿐만 아니라 개인도 즐기는, 연습실이나 공방 등 공간도 있지만 개인의 방에서나 야외 같이 한정되지 않은 곳에서 생활예술을 하는 것, 그것이 아티팟이고 이런 시민들이 모이는 축제가 아티팟 카니발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죠? 아이폰으로 노래를 만들고 연주를 하는 것은 어떤 장르에 속할 까요? 버려진 재활용품을 아주 맛있는 시계로 만드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바닥에 큰 종이를 깔아놓고 춤을 추며 캘리그래피를 하는 여성도 있고요. 핸드폰 · 드럼 · 주사위 등 자녀들을 위해 뭐든 세상의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주는 아빠도 있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놀러 다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설을 써주는 청년도 있습니다. 예쁜 야광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밤이 깊어지면 숲속 나무아래 풀숲에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조약돌을 만드는 소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게 자신만의 취향을 생활예술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자신만의 예술을 뽐내는 자리가 바로 아티팟 카니발입니다.

아티팟 카니발 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삶은 예술'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삶에서 실현하는 예술, 생활예술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모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단순히 개인의 취미생활에서 벗어나 이 개인의 활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 생활예술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가지 장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초석을 다지는 중입니다. 밴드, 연극, 시각예술, 감상 동아리들을 모아 발표의 기회를 주고 서로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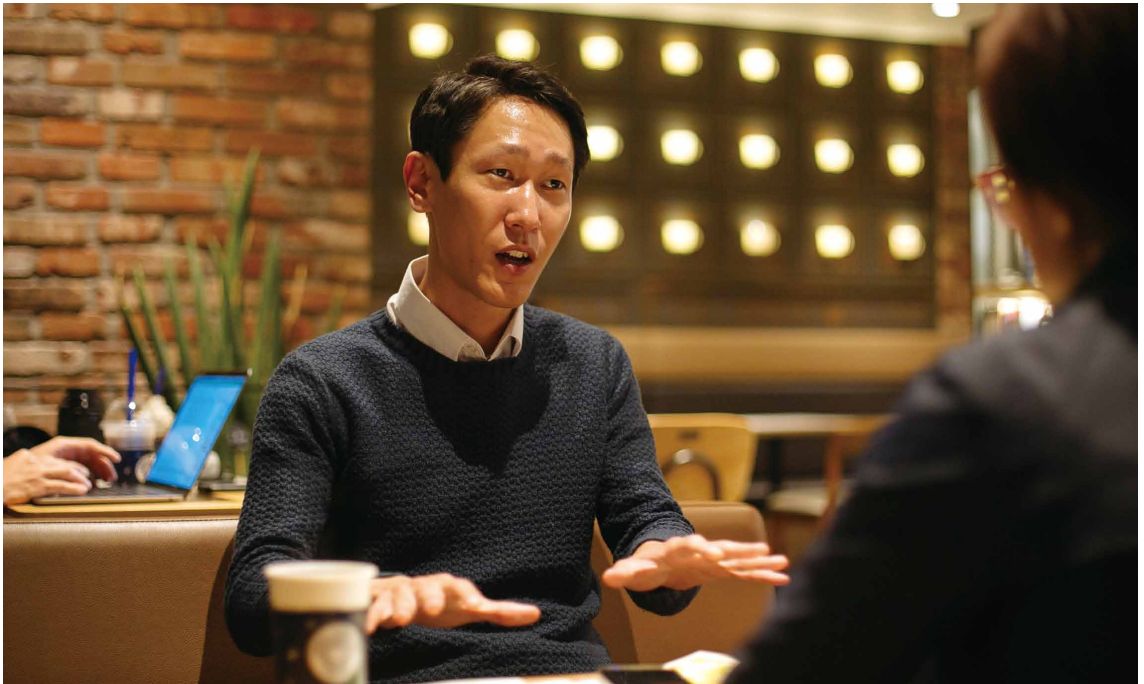
조진희

문화재단에서의 일은 다양한 업무로 많이 바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문화재단 일을 하면서 성남의 사랑방 클럽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웅

실은 올해 5월부터 이직하고 나서 연습실과 멀고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 몇 가지 이유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일하면서 생활예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운동 좀 해야겠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유행했을까요? 60~70년대는 운동한다고 하면 잘사는 사람들의 취미생활로 인식하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헬스장을 다니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배드민턴을 치는 등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국민들의 몸의 건강을 위해 장려된 정책이라면 정신건강은 무엇으로 건강해 질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을 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동아리활동까지 하면 됐지, 왜 다른 동아리들과 모여서 뭔가를 꼭 해야 하나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욕구들이 있지요. '욕구'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굉장히 원초적이고 부정적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나, 근사한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거나, 도로 위를 점령해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 혼자서 하거나 동아리 활동으로만 하면 이런 멋진 일들을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런 활동이 공적인 영역으로 오게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비용과 간접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공공의 세금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100% 못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신을 포함한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일상 안에서 작은 승리를 하게 되며 얻는 성취감은 단순히 '공연 보고 싶다.', '집에서 한숨 자고 싶다.', '친구들 만나서 어디 놀러가고 싶다.'의 차원에서의 욕구를 벗어나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옆의 이웃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채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재단에서 일할 때 보다 현장에서 직접 사랑방문화클럽의 회원들의 활동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축제 코디네이터로 일할 때는 재단의 입장과 각 동아리 회원의 입장을 조율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동아리 회원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지만, 제가 직접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분의 마음이나 상황을 100% 이해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이었고 제가 하던 작업은 사랑방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그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없으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부터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 사업에 재단 직원이 아닌 사랑방회원으로 직접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업무적인 면에서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했던 활동 중 사랑방 활동도 있었고, 후배들과 버스킹 공연 준비하는 활동도 해보고,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 동아리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폐부가 되었거든요. 동아리 선후배 동기들을 만나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하며 한 달에 1번씩 모여서 사물놀이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일이 많아서 다시 못 만나는 상황이지만요. 이런 활동들이 저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활력소가 됩니다. 힘들게 일하고 와도 노래 부르고 카혼을 치고, 예술을 하다보면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즐거움이 저의 계속 예술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조진희

사랑방 클럽에서 활동한 경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측면에서 연관되어 있고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마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솔깃할 주제일 것 같아요.

고웅

동아리를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교육, 즉, 배우면서 시작을 하게 되겠지요. 제가 아카펠라, 사물놀이 배우고 연습하고 공연을 했잖아요. 자신이 표현을 하고 자신을 표현하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지게 되요. 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술에 처음 다가가고자 할 때의 마음,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논문을 찾아주거나 사례를 추천하거나 도와주어야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나의 경험이 도움이 되어요.

조진희

조력자로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나요?

고웅

문화는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고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상당히 자신이 소모되고 있다고 느끼기 쉬운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을 같이 할 때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어서 좋고 또 열의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조력자로서의 일을 단순한 일자리로 보면 많이 지치고 소모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일을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그런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큰 차이가 생기는 시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 문화재단에서 생활 예술 영역 전문 영역으로 채용되었어요 저의 역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에요, 시민들과의 대화를 하면 재단과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 나의 노하우가 발현되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곳은 관이고 시민들이 활동하는 곳은 개별적이면서 감성을 다루는 동아리잖아요. 관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는 이성적인 파트를 이야기 하게 되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건전한 열망을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생기게 되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두 영역에서 생겨나는 그 차이가 확연할수록 부딪히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방클럽에서 내가 각 단계마다 경험하고 이해한 심리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갈등을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보고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면 먹고 서로 나누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관의 입장에서는 식비 6000원 혹은 7000원 또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행정적 처리를 잘 해석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조진희

사랑방 클럽을 취미로 하지만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생활예술, 생활문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 혹은 한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웅

한때 이벤트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직업 혹은 일자리로만 본 것이었어요.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연결을 가지게 되었어요. 일은 비슷하데 사람들과 스킨십을 가지면서 하니까 시너지와 에너지를 받게 되었어요. 저도 문화와 예술을 좋아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 충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만나면서 접점을 찾고 에너지를 받을 때가 훨씬 많아요. 생활문화 쪽에서 일하려는 사람 특히 매개자로서 일하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실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아리클럽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부분, 공연에 있어서 러닝 타임이라든가, 사람들과의 정치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시민에 실망을 하면 안 돼요. 시민들과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감정적 소모로 실망을 하게 되면 일에서 시너지나 에너지를 못 얻게 되거든요. 결국은 자신이 사소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좋은 인재인데도 '뭐 이런 데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 일을 그만두게 되더군요. 사람들이 사소한 무언가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방 네트워크를 점점합니다

일시 2017년 11월 2일
장소 성남아트센터 내 레스토랑 〈바람소리〉
진행 / 글 강미선, 배샛별
패널 곽윤부(풍물굿패 우리마당)
김도연(카밀라 폴 앤 밸리)
문혜윤(기타애락)
장종원(그린비 남성 합창단)
조현숙(도화지애)

사랑방문화클럽이 올해로 11년 돌을 맞았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다양한 활동 사례를 통해 성남시는 생활예술 측면에 있어 안팎으로 롤 모델이 되는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이 이렇게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생활예술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 때문일 텐데요, 이번 '사랑방 좌담'에서는 사랑방문화클럽의 네트워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방 클럽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다섯 분을 모시고 사랑방문화클럽이 지향해야 할 공동체적 가치는 무엇인지, 공동체적 가치를 달성하기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네트워크 활동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생활예술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습니다.



(좌부터) 조현숙, 곽윤부, 문혜윤, 장종원, 김도연

1. 사랑방문화클럽,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Q 안녕하세요. 만나 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사랑방문화클럽의 다양한 가치 중 네트워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양한 장르와 연차의 클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속되어있는 클럽과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종원

〈그린비 남성 합창단〉의 장종원입니다. '그린비'는 순수 우리말로 그리운 선비라는 뜻입니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합창단인데요. 사실 남녀 함께하는 활동이 부담스러워 남성합창단을 구성했는데, 좀 외로워서 작년부터는 단아한 여인이라는 뜻의 〈단미 여성 합창단〉도 만들었네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집안의 반대로 음악을 전공으로 삼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취미활동을 유지해왔고, 뜻이 맞는 분들을 만나 〈그린비 남성 합창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제든 공연 임박해서 연습을 했는데, 4~5시간 연습을 해도 전혀 지루함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전문 뮤지션에게 프로활동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순수 클래식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료 공연마저도 관객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 현실이구요. 그래서 직업과 분리해, 제 만족으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찌들었던 때를 연습하는 두 시간동안 씻어내는 느낌이지요.



곽윤부

〈풍물굿패 우리마당〉의 곽윤부라고 합니다. 〈풍물굿패 우리마당〉은 1995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2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공간이 없어서 경원대 운동장이나 신구대 운동장에서 모였어요. 그러다 1996년 가을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공간을 마련했죠. 회비와 재정사업을 하면서 공간을 여기저기 옮겼어요. 7-8년 전부터 재정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회비와 재정사업으로 일 년 예산이 3천만 원정도 확보되고 있어요. 멤버는 40여명 정도이고, 15-20년 된 원년멤버가 주축으로, 큰 행사에는 25명 내외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일 년에 크게 하는 행사만 6-7개입니다.

조현숙

〈도화지애〉의 조현숙이에요. 저희 클럽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가끔 카페에 남자도 가입 가능한지 문의가 오는데, 남성은 받고 있지 않아요. 연령대도 30-40대로 몰려있어요. 대부분이 비전 공자죠. 주부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남는 오전 시간에 문화센터를 많이 다니는데, 그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이거든요. 애정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그림 레슨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분들이 모여 2010년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클럽명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림을 그리는 모임이니 그림 '도', 그림 '화'에 사랑 '애'를 붙여 〈도화지애〉로 지었어요. 처음에는 다섯 명으로 출발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각자의 집을 돌면서 작업하다가 사랑방문화클럽을 알게 되었어요.

문혜윤

〈기타애락〉의 문혜윤입니다. 처음에 여성문화회관에서 클래식 기타 강습을 받았어요. 그때 기타를 처음 만져봤고,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만든 〈로망스 기타 합주단(이하 '로망스')〉을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어요. 〈로망스〉 활동을 하다가 〈로망스〉 멤버와 〈로스 아미고스〉 멤버들 중 일부가 클래식 외에 다른 음악과 다양한 핑거스타일을 알고 싶은 분들이 〈기타애락〉을 만들었는데, 저는 좀 늦게 합류했어요. 〈로망스〉를 창단할 무렵이 마침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것이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지도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로망스〉 음악감독 선생님이 사랑방문화클럽 창단 멤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을 따라 사랑방문화클럽에 들어왔어요.

김도연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현재 <카밀라 폴 앤 벨리>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구성원 모두 폴댄스와 벨리댄스를 가르치는 전문 강사들이에요. 춤을 추게 된 지 10년 되었구요. 2007년에 친구 따라서 배우다가 이게 너무 좋아져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을 즈음 이게 직업이 되었어요. 강사활동을 하다가 2013년도에 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고, 거기서 저희 선생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알던 선생님들과 공연단을 꾸리다가 학원을 하며 제자들로 인해 점점 더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Q 각기 다른 연차와 장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신만큼, 처음 생활예술을 접하게 된 계기 역시 서로 다를 것 같아요. 생활예술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문혜윤

제가 기타를 시작한 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타를 쳐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노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입 다물고 기타만 치니 주객이 전도되었네요. 기타를 처음 시작한 건 아이가 어렸을 때 직장을 잠깐 쉬면서 배웠을 때예요. 어린이집 보낸 시간에 잠깐씩 배우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걸로 하면 헛수는 길지만 중간에 쉬던 기간들도 있었어요.

조현숙

주부들은 정신없이 살다보면 1년이 그냥 가요. 아이들은 쑥쑥 크는데,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생활예술로 미술을 하면 1년에 최소 두 세 번의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작품이 남잖아요. 진짜 뿌듯하죠. 지금은 너무 많아서 거추장스럽기도 하지만요. (웃음) 처음에는 아이 방에 그림 한 점 걸어놓자는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발전해갔어요, 사랑방 활동을 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에게 얻은 정보를 습득하고 다른 장르팀들의 전시를 보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시간이 남을 때 부담 없이 하던 일이, 지금은 '아! 공부를 해야겠다', '아이들을 좀 더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현재 미술치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른 회원들도 다들 관련된 분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12년 째 매주 목요일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간 중간 공모전도 나가고 성남시문화예술지원금도 작년, 올해 지원금을 받아서 다음 주에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곽윤부

저의 생활예술 시작은 스무 살 때의 풍물경험부터 시작했다고 봐야지요. 27살 때 <풍물굿패 우리마당>을 만들었는데, 활동을 하다가 97-98년도 즈음에 멤버들끼리 모여서 이 활동을 직업으로 할지, 취미로 할지 고민을 했어요. 전 그때 취미로 하겠다고 했죠. 저는 풍물을 하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좋아서 아직까지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만 좋은 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내와 대표도 여러 번 하며 지금까지 왔네요. 매년 신입회원들을 모집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도연

사실 저는 무용전공자는 아니에요. 원래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있는 춤을 추게 된 거 같아요. 지금도 대학동기나 회사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들은 제가 춤을 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전혀 춤과는 상관없이 암전하게 지냈던 친구여서. (웃음)

2.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의 핵심은 '네트워크'. 하지만...

Q 사랑방문화클럽의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일로 꼽는 것은 아무래도 다양한 생활예술인을 매개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얻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종원

솔직히 처음에는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하면 연습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 클럽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회의하고 일을 진행하다보니 다른 장르의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어요. 같은 장르에서도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요. 특히, 작년에는 '세계 민요'라는 테마로 공연을 했는데, 곡에 맞는 악기들을 붙이려고 알아보다가 이왕이면 사랑방클럽 내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획했어요. 몰랐던 단체들을 알 수 있게 되었죠. 대부분의 클럽이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하면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조현숙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진행하는 미술 전시를 갔다가,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함께 만든 좋은 작품들에 자극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랑방에서 지원을 받는 것들이 편했어요. 지금은 각종 서류와 지원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바뀌었지만, 당시는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면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회원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당시 전시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이 있었는데, 그 교육사업 봉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교육사업 봉사를 하는 공간이 오전 중에 비는 것을 알게 되고 주 1회 그 곳을 이용하면서 회원도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사랑방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봉사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도촌복지관에서 지원 받아서 공간을 사용하며 모임활동을 하고 있어요.

문혜윤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공연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공연 요청을 해오세요. 그리고 클럽 내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되신 분들이 공연을 잡기도 하셔서, 연습 때문에 일주일에 여러 번씩 만나고 있어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취미활동을 깊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웃음) 너무 자주 모여서 연습실을 알아보려 다닌 적도 있었네요. 연습 외에 산에 다니거나 영화를 보는 다른 친목활동들도 함께 할 만큼 친해서 저희끼리 '이거 그만 못 둔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각자 성격이 다른데 십몇 년을 함께 하다보니까 누군가 세게 나오면 맞추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관계를 이뤄나가는 거 같아요.

장종원

그런데 도움을 받고 전체 활동에 열심히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하면 일 년에 한 번도 활동을 안 하는 단체들이 상당수예요.



Q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한 세 분의 말씀을 요약하면 '생활예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장종원

각 클럽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클럽은 내부적으로도 활동이 저조하거나, 관계의 친밀도가 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클럽을 이끄는 사람의 마인드가 5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내 클럽의 활성화가 제일 목적이니 그것이 잘되면 사랑방문화클럽 전체 활동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 전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내 클럽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문혜윤

두 개의 클럽을 해보니까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 클럽지기의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아마추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클럽마다 구성원들의 성향이 다 다르지만, <로망스>같이 인원이 많은 경우는 클럽장에 따라 색깔이 많이 달라져요. 저희는 클럽장이 2년마다 바뀌는데, 클럽장에 따라 어떤 2년은 매우 적극적이다가, 또 어떤 2년은 소극적이기도 해요. <기타애락>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적다보니까 리더가 적극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단원들끼리의 끈끈함으로 더 많이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 성향도 중요하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우선은 인간관계나 교류가 친밀하다고 느껴지면 시간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도 같이 하게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한 거 같아요.

조현숙

저는 '성남문화의 집'에서 강습을 다니다가 사랑방문화클럽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그곳에서 강습하시던 분들은 사랑방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일 년에 작품 하나 그리는 정도의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랑방문화클럽은 활동이 많잖아요. 그걸 버거워하셨던 거죠.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동해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지만요.

곽윤부

사실 운영위원회 또는 클럽장을 제외한 사람들은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에 관심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이 사랑방문화클럽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클럽지기 변동에 따라 팀 색깔이 바뀌는 것도 팀원들이 대체로 '사랑방의 공동체적 가치'에는 동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단장으로 있을 때는 저희 팀이 함께 활동했지만, 단장이 아닐 때는 사랑방문화클럽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 개인적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내부 동아리 활동과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긴 해요.

저희는 사랑방 생기기 7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초창기에 사랑방 꾸릴 땐 나름 성남 지역에서 이름 있게 활동하던 팀들과 네트워크를 이어왔는데, 지금은 빠진 팀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조금은 이기적인데, 우리 팀 활동도 바쁘는데 사랑방문화클럽으로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우선 순위의 갈등을 가져오는 상황도 되었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활동적인 팀들이 굳이 사랑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활동력 있는 클럽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어요. 공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사랑방문화클럽에 와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사랑방문화클럽의 가치에는 동의를 하죠. 다 같이 어울려서 하면 성남문화지역이 문화예술을 더 향유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냐, 그런 대의는 있죠. 하지만 안정된 클럽들은 사실 다른 클럽보다는 함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없는 편 인거죠. 사랑방 활동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클럽장의 활동, 열의 등에 의존하기 때문인 거 같아요.

장종원

하지만 사실 곽윤부 선생님이 소속되어있는 단체 같이 자체적으로 재정이 안정된 곳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자체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연주회를 화려하게 한 적이 있는데, 천만 원이 들었어요. 성남발전기금과 후원금,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 축하 같은 행사를 뛰어서 번 돈으로 한 거죠. 행사를 몇 번 뛰었느냐에 따라서 정기연주회를 위해 각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인지 결정돼요. 클럽 통장에 천만 원 이상 여유자금을 만드는 것이 꿈인데 쉽지 않아요.

Q 김도연 선생님은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랑방문화클럽은 따로 돈이 되는 활동이 아닌데, 부담되는 부분은 없나요?

김도연 그래도 저는 사랑방문화클럽이 너무 고마워요. 더 많은 길을 열어 준 활동인 거 같아요. 한마당 사업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장르의 팀도 있고 또, 여기서 소개해 주신 다른 공연을 갔다가 그 쪽 팀을 알게 되면서 네트워크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사랑방문화클럽을 안 들어왔으면 풍물하시는 분이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따로 관심도 없었을 거고요. 여기와 와서 다양한 생활예술장르를 만나게 되면서 많이 느끼고 배워요. 운영위원을 하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Q 무용팀은 사랑방문화클럽에 관련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김도연 무용 장르 다른 팀들이나, 학원 팀들에게 사랑방문화클럽과 관련된 상황을 공유하고 있어요. 무용팀 클럽 지기가 열 분 정도 있지만, 절반은 연락이 잘 안 돼요. 클럽지기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같이 생각을 안했다면 저희 팀도 힘들었겠죠.

Q 조현숙 선생님께서는 처음 사랑방문화클럽에 참여했을 때 이미 많은 미술 클럽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클럽들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나요?

조현숙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2010년에는 전시부 작품을 808갤러리(성남아트센터 내)에 걸면 빈틈이 없을 만큼 작품이 빼곡했는데, 점점 팀들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전시부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전시부의 경우에는 각 팀마다 특성이 정말 다양해요. 저희 팀처럼 매주 모여서 활동하는 팀이 매우 드물어요. 각자 작업하고 전시나 행사가 있을 때 작품 들고 모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랑방 클럽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 외엔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하나 도움을 받으면서 해 올 수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팀들은 사랑방 전시의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신 거 같아요. 각자의 개성들도 강한 분들이 많아서 약간의 충돌들도 있고요. 그러다보니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회의를 느끼고 다른 전시나 다른 활동으로 이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 같아요.

Q 클럽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종원 일주일간 세파에 찌들어 살다가 클럽활동을 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이해관계 그런 것들을 벗고 친형제처럼 뭉치게 돼요, 그저 음악이 좋다는 것 하나 때문이에요. 여가 시간은 인생의 가치관이 같은 이들과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함께 모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외된 커뮤니티에 봉사활동도 하고요. 여가를 즐겁게 웃으면서 보내고 싶은 이들과 모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형편 문제를 벗어나서 안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마인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3.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를 위해 필요한 것

Q 사랑방문화클럽의 가장 큰 매력인 네트워크가 동시에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사랑방문화클럽의 목적 중 하나인 성남 지역의 공동체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성남문화클럽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조현숙 그게 정말 어렵죠. 전시를 매번 다채롭게 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전시 장소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뽀하고, 새로운 클럽이 영입이 돼서 새로운 작품을 보는 것 이외에는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분들의 전시가 연속되니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그렇죠. 저희 클럽만 해도 벌써 7회째 하고 있는데 이맘때 가을만 되면 “내년에 사랑방 할 거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전시부에 있는 클럽들이 쇠퇴되는 것 같고 사랑방 안에서의 활동들도 뽀하니까. “할거야?”하고 물을 때, 저는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나 설득시킬만한 근거가 점점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많은 혜택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이만큼 성장했는데, 이제 와서 자족할만하다고 사랑방을 떠나려고 하면 막상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들에게 하자고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고민이 있죠.

장종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야 한다고 작년까지는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술선수범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단체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가자’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맘이 동해야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화려했고 성공적으로 하려고 해요.

문혜윤

사랑방문화클럽 초기에 기타팀들은 인원도 많고 이동도 편하지가 않은데, 불러주시는 곳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멀다하고요. 그때는 실력도 별로 없었을 텐데요. 그래도 기쁘게 다녔거든요. 나중에는 지쳐서 힘들 정도로요. 그러다 3년쯤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와보니,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1년에 한 번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놀라서 어찌된 일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클럽이나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루즈해지며 성숙해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매너리즘도 어떻게 보면 성숙의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만의 스타일들이 구축된 거죠. 그래서 클럽들이 덜 모이는 것을 꼭 클럽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자체 클럽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공동체적 기반이 되거든요.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에 모두 참여해야만 좋은 클럽 인건 아니에요.

Q 각 클럽들도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로 들만한 것이 있을까요?

문혜윤

이번 한마당 때 각자의 활동 위주로만 하던 클래식 팀들을 모아 '100인의 울림'이라는 행사를 기획 하신다길래 제가 맡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서만 도와드리고 손을 댔는데, 여러 클럽의 단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희생을 하신 덕분에 힘든 과정이었지만 잘 마치게 되었어요. 재미있는 건 행사를 하기 전에 따로 놀던 사람들이 다른 팀의 연주회를 찾아다니며 응원하고 그러더라고요. 단독방도 아직 유지되고 있고요. 다른 클럽의 평단원들끼리 교류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클럽활동의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되면 스스로 참여하게 되는 거 같아요.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은 친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 같아요.

Q 그렇다면 성남문화재단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혜윤

방금 '100인의 울림'의 예처럼 각 클럽이 친해지는 기회를 성남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간 사업에 참여하면서 재단이 정해진 코디네이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 같아요. 차라리 적극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코디네이터들이 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랑방문화클럽을 잘 이해하는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전반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곽윤부

안 그래도 운영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외부 코디에게 돈을 주고 해봐야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들끼리도 강사님들도 있고, 오히려 저도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코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재단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할 과제인거 같아요.

조현숙

전시부 같은 경우에는 미술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연하시는 분들은 모여서 연습을 하시지만, 저희는 같이 미술작업을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거든요. 깔끔하게 전시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지 공예가 언제 어디에서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미술파트의 교류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에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회의를 하면 전시부만 따로 만나다보니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채롭게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면 쌓여지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져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문혜윤

그리고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 개편이요. 현재는 사실상 버려진 홈페이지예요. 사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1차적으로 습득하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조현숙 홈페이지가 클럽 홍보, 활동 등을 볼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종원

저는 재단에게 바란다고보다는 사랑방문화클럽의 자체 기금이 전혀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활동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사랑방문화클럽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생력을 키워야죠. 만약에 각 클럽이 행사를 해서 돈을 벌면 거기서 50% 정도를 받아서 사랑방문화클럽 공동기금으로 세이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체기금이 없으니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Q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신 만큼, 정말 다양하고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로 사랑방문화클럽이 11년 해를 맞았는데요, 앞으로 또 10년을 향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을 가치 혹은 지점이 있을까요?

곽윤부

‘사랑방의 노래’ 가사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봐요. “성남에는 어딜 가나 문화클럽의 모임이 있다네. 그 모임에는 누가 구경꾼이고 누가 주인공이 없다네.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구경꾼이 되어 준다네. 시민들은 100년 후를 노래한다네. 예술 시민의 도시, 성남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창조가들이 탄생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들딸들이 사랑방 문화클럽이 꽃피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네.” 이 가사가 저로 하여금 힘들 때도 사랑방문화클럽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Part 2.

모두 모인 한마당, 함께 즐거운 축제



모두 모인 한마당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소개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취재기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집단취재기

함께 즐거운 축제

경기생활예술클럽한마당 취재기

모두 모인 한마당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은 사랑방문화클럽들이 서로 단합하여 기획한 공연, 전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성남 지역 곳곳에 직접 방문하여 봉사하는 문화공헌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가입된 클럽 외에 2개 이상의 신규클럽과 팀을 구성하여 공헌활동을 기획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동일·융복합·창작으로 장르를 구분해 전문 코디네이터를 투입하여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규클럽의 발굴, 클럽 활동 참여를 위한 장벽 낮추기, 기존 가입 클럽의 동기 부여, 다각적 방식의 공동 활동 고안 등 목적을 가진 간접지원방식의 사업으로 직장인 동아리 대상 강사 지원, 다문화아카데미의 교육 및 전시, 찾아가는 도시락 콘서트, 클럽데이 등의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북을 만드는 시민에디터들은 한마당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몇 프로그램을 사랑방문화클럽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싶습니다. 올해 이뤄진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의 일정과 몇 프로그램을 토크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동아리가 소중하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사랑방클럽을 세세히 소개하지 못해서 무척 아쉽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생활예술 스타만들기〉라는 재미난 시도도 함께 소개합니다.



축제 거리 풍경 | 사진 | 정동주

색소폰 릴레이 콘서트



- 팀명** 사랑방연합색소폰
- 팀장** 이병석
- 일시** 6/24 19:00
9/17 18:00
- 장소** 야탑역 광장
- 코치** 이성하
- 참가팀** 풀잎소리늘푸른 색소폰
해피 색소폰
소리원 색소폰
판교 색소폰
뮤젤 밴드
소운색소폰사랑방

100인의 올림



- 팀명** 100인의 올림
- 팀장** 제갑정
- 일시** 9/9 19:00
- 장소**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 코치** 윤성진
- 참가팀** 서울만돌린체임버
성남만돌린오케스트라
로스아미고스
세실기타
알함브라
로망스
기타애락
아르떼만돌린
서른이

우리동네 생활예술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



팀명 사랑방 슈퍼스타팀
 팀장 나명철
 일시 11/11 17:00
 장소 연음홀
 코치 허진
 참가팀 기타산책
 기타애락
 로망스기타합주단
 오리날다
 루비양상블
 우쿨즈
 웰컴밴드
 하이파이브

댄스 인 시네마



팀명 사랑방무용팀
 팀장 김도연
 일시 9/15 19:00
 장소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코치 송경희
 참가팀 카밀라 폴&벨리댄스
 이매 우리춤
 하모니 무용단
 뉴알로하
 박제인한국벨리
 경기교방
 다모글로벌교육문화협동조합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팀명 동네사람들
팀장 장계석
일시 8/26 19:30
장소 탄천(불곡고등학교)
코치 심한기
참가팀 경기교방
버디 색소폰 앙상블
청실홍실
사랑나눔 하모니
풍물패 '뜰'
(초청가수) 박혜영

봄의 축제



팀명 봄의 축제
팀장 최일주
일시 5/10-5/23
장소 평생학습원 1층 평생누리홀
코치 조주연
참가팀
공연 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 이수연예술단,
함성, 이매우리춤, 첼로포니아
퍼포먼스 캘리애, 수목향기
체험행사 꽃다방, 바람, 수목향기, 캘리애
전시 꽃다방, 다사랑회, 민화바림회,
분당해드로잉, 아띠미, 야미야미,
예다움, 캘리애, 포토저널 성남,
넵킨&토탈공예, 수공예친구들,
한지누리, 노블아카데미, 늘그림,
도화지애, 분당민화, 분당수채화가회,
수목향기, 아따피, 하나로

사랑방오케스트라 그룹



팀명	
팀장	김진숙
일시	9/16 17:00
장소	중앙공원야외공연장
코치	심한기
참가팀	분당챔버오케스트라 분당윈드오케스트라 첼로포니아 사랑방 합창단 성남청소년국악관현악단 분당청소년오케스트라 글로벌청소년오케스트라 점핑플리즈 우쿨렐레 라운제나 우쿨렐레

사랑방 거리예술 프로젝트



팀명	사랑방거리예술단
팀장	고웅
일시	6/10 16:00 7/15 17:00 10/31 18:00
장소	이매역사, 판교역사 (2회)
코치	남동훈
참가팀	하이파이브 루비크로스오버앙상블 기타산책 분당요들클럽 몰처럼바람처럼밴드 우쿨레이디 카밀라 폴앤밸리

타악퍼포먼스



팀명 타악퍼포먼스
팀장 곽윤부
일시 7/6-9/23 19:00
장소 서현 문화의 집
코치 심한기
참가팀 합성
점핑폴리즈
원플룻앙상블
풍물굿패우리마당
어쩌다 여기까지

지역주민,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도시락업콘서트 2



팀명 문화사랑 행복만깃
팀장 신용배
일시 9/14 19:00
장소 휴맥스 아트홀
코치 허진
참가팀 사랑나눔 하모니
푸노스
도프앙상블
음악시간
성남시니어 오케스트라
디아이피
인스타
송경철
두루치기

생활문화로 동고동락



팀명 동고동락
팀장 정길선
일시 9/10 17:00
장소 야탑역 광장
코치 김만석
참가팀 성남취타대
 태평성대
 풍물패 "뚝"
 소리친구회
 소리사랑회
 우리소리에술
 청실홍실
 청사초롱
 전통춤기교방
 다모글로벌협동조합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성남세경국악실내악단
 소리향실내악단
 캘리아
 포토저널성남

사임당



팀명 사임당
팀장 정동주
일시 6-12(월 1회)
장소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코치 조주연
참가팀 포토저널
 수목향기
 도화지애
 캘리아
 다사랑회
 꽃다방
 아따피
 수공예친구들

멋으로! 놀이로! 예술로! 3色 클럽데이



팀명	클럽데이팀
팀장	신성봉
일시	9/2 19:00 10/21 15:00
장소	큐브플라자 2층 이벤트광장 중앙공원야외공연장
코치	이성하
참가팀	고은소리 사이드 이펙트 포엠송 아스피린 세실기타 기타산책 기타애락 분당요들클럽 웰컴밴드

다인수요음악회



팀명	다인수요음악회 네트워크
팀장	김혜정
일시	6/21 19:30 7/19 19:30 8/23 19:30 9/20 19:30 10/18 19:00
장소	다인 마을놀이터(도촌동) 태평2동 다복마실 이지더원북카페(삼평동)
코치	윤성진
참가팀	기타산책 늘푸른색소폰 물처럼바람처럼밴드 분당요들클럽 우클레이디 웰컴밴드 쑤마세시봉 플루투유 하이파이브



멋으로 놀이로 예술로 3색 클럽데이

시간 2017년 9월 2일 19시

장소 큐브플라자 2층 이벤트 광장

참여 동아리

사이드이펙트
고은소리
세실기타
포엠송
아스피린
기타산책
기타애락
분당요들클럽
웰컴밴드



9월 2일 저녁, 하늘은 청명하고 바람은 시원한 날이었다. 이날,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의 이벤트 광장에서 '멋으로 놀이로 예술로 3색 클럽데이'가 열렸다. '사이드이펙트', '세실기타', '고은소리', '포엠송', '아스피린', '기타산책', '기타애락', '분당요들클럽', 한마당에는 여덟 개 클럽이 참여했다. 한 클럽이 자신들만의 연주를 하고, 다른 클럽과 콜라보를 했는데 '여럿이자 하나인' 무대였다. 함께 한다는 의미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보였달까. 기타애락 단장인 홍경숙 님은 이날을 위해 '탄천에서 no.1'을 만들어, 모두에게 바쳤다.



기타를 연주하는 클럽이 다수였는데, 클럽들은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선곡과 연주법을 보여줘, 두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테이블과 객석 여기저기에 치킨과 음료와 샌드위치와 맥주가 놓였고, 여러 클럽 사람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공연을 관람했다. 제법 긴 시간이 있을 텐데 중간에 자리를 뜨는 관객 없이 모두가 연주를 즐겼다. 연주자들 역시 무대 뒤로 사라진 게 아니라, 연주를 마친 후 관객석에 앉아 다른 연주자들의 연주를 즐겼다. 자유롭게 속도감 있는 공연이 가득한 무대였다.

악기를 벗고 연주자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럿이 낸 한 소리는 사랑방클럽의 소리였고, 모두의 즐거운 마음을 가득 담은 소리였다. 마지막 무대는 웰컴밴드가 장식했다. 이 밴드는 마침 클럽데이의 마지막 무대를 위해 만들었다. 연주에 맞춰 가수들이 관객석에서 하나 둘 나타날 때마다 관객들은 환호했다. 무대에서도 관객석에서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질렀다.

| 사진 | 정동주 · | 글 | 강미선

백인의 울림

시간 2017년 9월 9일 19시 30분

장소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참여 동아리

성남만들린 오케스트라
아르떼 만들린 앙상블
서울 만들린 체임버
기타애락
로망스 기타합주단
세실 기타합주단
로스 아미고스 기타합주단
알함브라 기타 앙상블
서른이



9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분당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는 <100인의 울림> 공연이 펼쳐졌다. 이름처럼 100대가 넘는 클래식기타와 만들린이 한 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자리다. 이 공연은 생활예술시대를 선도하는 성남시와 '사랑방문화클럽'의 9개 동호회가 '한마당 행사'로 기획한, 한 해의 열정과 결실을 지역 시민들과 공유하는 무대였다.

하모니를 이룬 동호회들 리스트 좀 볼까?

만들린 동호회인 성남 만들린 오케스트라, 아르떼 만들린 앙상블, 서울 만들린 체임버와 기타 동호회인 기타애락, 로망스 기타합주단, 세실 기타합주단, 로스 아미고스 기타합주단, 알함브라 기타 앙상블이 연주에 참여했고, 인문강독클럽 서른이가 영상과 진행을 맡았다.

〈100인의 올림〉은 뿌리 깊은 동호회가 모여 구성이 다양했다. 각기 활발한 활동과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여러 동호회가 ‘100인’이라는 큰 연합을 이루었다. 기타리스트 호세 리가 찬조 출연했고, 주리 스페인-무용 콰니아가 플라멩고 공연을 더해 관객 뿐 아니라 연주자의 이목을 끌었다. 비슷한 공연이 내년에도 또 기획된다면 재즈댄서나 스트릿, 그리고 소리꾼, 래퍼 등 다른 세션이나 장르와의 실험적인 시도를 기대해도 좋을 성 싶다.

연주곡 역시 다양했다. 익숙한 곡과 낯선 곡이 조화롭다. 강렬한 기타 리프에 이어 “On a dark desert highway, cool wind in my hair”로 시작하는 이글스의 “Hotel California”를 클래식 기타로 들으니 색다르고 부드럽다. 스페인 세비야 민속음악과 러시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재즈모음곡 2번 비엔나 풍의 왈츠 등 영화음악과 세계 가곡, 팝과 클래식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각 클럽들의 실력 있는 연주가 가을밤 별빛처럼 쏟아졌다. 순서 사이사이 마련한 단원들의 인터뷰와 관객을 위한 퀴즈시간도 인상적이다. 연주도 그렇거니와 객석은 상품 당첨을 향한 격한 손짓과 웃음이 파도를 친다. 무엇보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기타와 만물린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진 않았을까?

〈100인의 올림〉의 영상과 진행을 맡은 인문강독클럽 서른이의 강미선 팀장은 “각기 다른 성격의 동호회와 교류하며, 소통이라는 새로운 올림을 만들어내게 되어 기쁘다. 콘서트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시민들 모습이 좋은 에너지로 돌아오는 것 같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100인의 올림〉은 그동안 동호회들이 마련한 한마당과 축제들 중에 가장 많은 수의 관객이 참여했다. 기획구성을 더 새롭고 재미있게 짜고, 소셜 홍보나 행운권 추첨, 퀴즈 등 관객 참여를 고려하고, 연주의 수준이나 노하우도 촘촘하게 높인다면, 유료 공연이라도 손색없을 듯 싶다. 더 많은 시민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공헌하는 예술마당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가득 앓고 집으로 간다.

| 사진 | 정동주 · | 글 | 강미선



Dance in Cinema

시간 2017년 9월 일 19시

장소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분당, 중앙공원 야외 무대에는 주말마다 멋진 공연이 벌어진다. 공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자기가 좋아서 한다는 점에서 아마추어들이 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내 이웃이 기획하고 연습하여 마련한 작품들이 올려오는 무대이다. 9월 15일은 사랑방 문화클럽 무용팀의 작품으로 "dance in cinema"가 주제이다. 먼저 영화 속의 dance를 감상하고 사랑방 문화클럽의 각 팀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뉴 알로하 홀라는 하와이 dance를 추었다. 빨간 꽃과 노란 원피스에 팔목에는 흰꽃 팔찌를 하고서 얼굴의 자연스러운 웃음을 함박지었다. 춤을 출 때마다 흰 속치마가 드러나며 가을에 여름의 향기를 무대 위에 가득 뿌렸다. 하모니 무용단은 KBS 드라마 황진이가 춘 화선무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들었다. 춤을 추는 자신이 어색한지 무뚝뚝하게 시작은 하였지만 중반을 넘어서자 곱고 아름다운 한복과 부채에 어울리는 화사한 미소가 간간히 묻어 나왔다. 발리댄스 오리엔탈의 댄스는 이집트와 서양의 무용이 합쳐졌다고 하였다.



참여 동아리

경기교방, 이매우리춤
뉴알로하 홀라, 하모니무용단
박제인한국벨리, 카밀라 폴&벨라
다모글로벌교육문화협동조합



영상 속에서는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의 몸짓과 그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 사이에 일어나는 눈빛 교환만으로도 섹시함이 넘쳐나고 있었다. 영화에서는 고혹적인 댄서의 눈빛과 몸 전체의 실루엣이 부각 되었다. 그에 비해 실제 공연은 파워가 넘치는 음악과 큰 동작으로 이루어져 섹시함보다 건강함과 힘을 드러냈다. 공연을 하는 무용수들도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몸매보다 더 건강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공연이 진행되면서 더 격렬한 움직임은 긴장이 풀려가고 얼굴이 여유를 찾아가고 무대는 열기로 가득해졌다. 여러 팀들이 함께 만든 공연은 때로는 섹시하게, 어떤 것은 강렬하게, 어떤 것은 품위있게 만들어 각자의 분위기와 역량을 보여주면서 영화 속의 음악과 댄스를 연결한 작품들이었다.

몸을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관객들과의 매개를 영화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더욱 이해의 척도를 높여 주었다. 다만 무대는 열기가 가득한데 객석은 다소 한가롭다. 잔디에 앉아 내 이웃의 공연을 열렬하게 박수 쳐줄 이웃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관객의 여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간이었다.

| 사진 | 정동주 · | 글 | 조진희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집단취재기



| 사진 | 정동주

제11회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The 11th Sarangbang Club Festival

A | 개막식
일시: 9.23(토) 17:00
장소: 입점처 1층 로비
-개막공연, 축제로의 초대

B | 기념촬영과 후원업체 소개
일시: 9.23(토) 17:00-18:00
장소: 입점처 1층 로비
-사단, 후원, 후원사 소개

C | 후원업체 소개
일시: 9.23(토) 18:00-19:00
장소: 입점처 1층 로비
-후원업체 소개, 후원사 소개

D | 후원업체 소개
일시: 9.23(토) 18:00-19:00
장소: 입점처 1층 로비
-후원업체 소개, 후원사 소개

E | 후원업체 소개
일시: 9.23(토) 18:00-19:00
장소: 입점처 1층 로비
-후원업체 소개, 후원사 소개

F | 후원업체 소개
일시: 9.23(토) 18:00-19:00
장소: 입점처 1층 로비
-후원업체 소개, 후원사 소개

G | 후원업체 소개
일시: 9.23(토) 18:00-19:00
장소: 입점처 1층 로비
-후원업체 소개, 후원사 소개

◆사람방문화를업죽제 일정표 (9월23일)

시·도별 인구(만 명)	도시지역(인구 5만 이상)			시외지역(인구 5만 미만)		
	총 인구	인구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인구 비중	면적 비중
서울	10,000	100%	100%	0%	0%	0%
부산	3,500	100%	100%	0%	0%	0%
대구	2,500	100%	100%	0%	0%	0%
인천	2,900	100%	100%	0%	0%	0%
대전	1,500	100%	100%	0%	0%	0%
광주	1,500	100%	100%	0%	0%	0%
울산	1,400	100%	100%	0%	0%	0%
경북	2,500	100%	100%	0%	0%	0%
충청	2,200	100%	100%	0%	0%	0%
전남	1,200	100%	100%	0%	0%	0%
전북	1,200	100%	100%	0%	0%	0%
경남	1,500	100%	100%	0%	0%	0%
충북	1,200	100%	100%	0%	0%	0%
강원	1,200	100%	100%	0%	0%	0%
제주	500	100%	100%	0%	0%	0%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2017년 정원축제 (Garden Festival)

일 시: 2017. 9. 23.(토) 09:00~18:00
장 소: 성남시청 대 시정공화 앞편

· 47개소 가운데 청천 자연 관찰 및 해안어업 체험 투어 프로그램

	242명	42
·세금 프로그램 반영		
·프로그램 내용		

학업성취 측정	선학술 인정점수
교과지식수준 및 학습태도	교과점수 평가에 별도 점수

[illegible]

프로그램	일시/장소	내 용
축제 개막행사	9. 21.(목) 17:00 성남시청 누리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선언 및 오프닝 이벤트 - 사랑방 공연클럽의 축하 공연 - 개막 퍼포먼스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展	9. 21.(목) ~ 23(토) 17:30 성남시청 누리홀 및 2층 공감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 오프닝 세리머니 - 전시 관람 • 어린이사생대회 대상 : 경기도지사상 / 최우수상 성남시장상 / 우수상 :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상 / 장려상 :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장상
경기 생활예술 클럽한마당	9. 23.(토) 10:00 ~ 16:00 (* 리허설 포함) 성남시청 4개 공연장에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지역의 생활예술클럽 교류 및 공연 - 장르별 총 38여개 클럽 참가, 행사 참가비 지원 - 참가 클럽 상호 교류와 나눔 프로그램 진행 - 모범클럽 3개클럽 선정 • 장르 및 행사 장소 - 국악,색소폰마당 : 성남시청 분수광장 특설무대 - 만돌린,우쿨렐레마당 : 시청 한누리홀 - 통기타마당 : 시청 서편 체육공원 쪽 야외무대 - 합창마당 : 시청 온누리홀
사랑방 거리축제	9. 23.(토) 10:00 ~ 18:00 성남시청 앞 왕복5차선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마을음악대 - 사랑방문화클럽 길거리버스킹 • 우리마을미술관 - 도로 위 분필아트 • 우리마을놀이터 - 재미난 사랑방놀이터 • 우리마을장터 - 벼룩시장, 아트마켓 • 우리마을먹거리 - 먹거리장터(마을공동체) • 우리마을방송국 - 사랑방라디오 • 정원음악회 - 사랑방문화클럽 공연
사랑방 퍼레이드	9. 23.(토) 16:00 ~ 17:30 성남시청 앞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방 퍼레이드 - 주 제 : 생활예술이 꽃피는 마을 - 소 재 : 가면과 일곱 색깔을 컨셉으로 한 의상 및 소품 등 - 동 선 : 성남시청 앞 도로 ~ 시청 광장 - 참 가 : 사랑방문화클럽, 마을 참가팀, 시민 누구나
축제 폐막행사	9. 23.(토) 17:30 ~ 18:00 성남시청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막대동놀이 및 이벤트 • 폐막선언

함께 즐거운 축제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된 클럽들이 기획·주도하는 합동 발표의 장입니다.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 약 일주일간 개최되는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매년 6월,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축제를 준비합니다. 전시팀과 공연팀의 두 축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축제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와 미술관은 물론, 율동공원, 중앙공원, 분당구청 등을 무대로 각자 클럽의 특징에 맞춰 퍼레이드, 전시, 공연 체험 등을 준비합니다. 올해 성남시청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진 〈사

랑방문화클럽축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거듭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생활예술 시대를 이끌어가는 제11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성남시청과 시청공원, 시청 앞 도로에서 진행됐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 즐기고 참여하는 일상 속 예술의 향연은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 꼭 그 두터운 명맥을 이어갈 겁니다.

우리는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 참여하여, 우리가 바라 본 모습과 느낌을 글로 옮겼습니다.

양시원의 여는 말

생활예술의 대표 브랜드인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이 9월 21일(목) ~ 23일(토) 성남시청 일원에서 11번째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벌였습니다. ‘생활예술이 꽃피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전시·어린이사생대회·경기생활예술클럽한마당·거리축제·퍼레이드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서른이와 함께 ‘축제’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진 | 정동주

조진희가 들여다 본 ‘전시들’

1층 누리홀과 2층 공감갤러리에서 사진, 회화, 공예, 캘러그래피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1층 로비의 전시회와 시청 2층 공감 갤러리의 사랑방 공예클럽들의 공예전을 가보기로 했어요.

시청 광장에 들어서니, 유유히 자전거를 타는 아이와 엄마가 천천히 속도를 맞추며 길을 가더라고요. 어찌나 좋아 보였는지요.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따라 움직였어요. 시청 안 누리홀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것도 무도회에 모인 회원들처럼 저마다의 복장을 갖춰 입고 말이죠. 저는 일상복을 입고 갔는데, 파티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돼버렸죠. 우선 2층 공감 갤러리에 올라갔어요. 입구에는 전시의 제목인 “생활 예술이 꽃 피는 마을”라는 문장이 아름다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활이 예술로 만들어졌나 아니면 예술이 얼마나 꽃 피어서 일상의 생활에 묻어 있다는 말일까?” 혼자 묻기도 했죠. 다시 공감갤러리 밖으로 나오니, 로비에서는 연주회가 진행 중이었어요. 한 호흡을 잠시 쉬고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회원들

| 사진 | 정동주



갤러리 전시장으로 돌아갔죠. 참, 모란시장과 남한산성에 어울리는 캘리그래피가 있었어요. 성남에 사는 사람에게 확 와닿는 장소잖아요? 그 장소에 어울리는 캘리그래피였고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보았어요. 종이를 짓이겨서 만든 공예품을 들여다보니 얼마 쯤 안됐는데, 작품을 만든 작가가 조용히 다가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품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지를 친구에게 이야기 하듯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다시 나와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누리홀에서는 아직 사진과 회화 전시의 오프닝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동아리들 사람들이 갖가지 복장으로 치장한 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테이프 커팅이 끝나자, 사람들은 사진과 그림 앞을 서성이며 들여다보기도 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1층 누리홀에서 펼쳐진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전시
| 사진 | 양시원

성남의 대표 장소가 사진에 담겨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떼어내어 사진에 담아, 전시실에서 다시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소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쏙 빼내어 볼 수 있게 하는 건 아닐까요? 작가의 아름다운 시선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하며 구경을 다녔는데, 사진으로 모란시장 전체를 다시 보니 이 모든 사람들을 한번에 보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한산성에서 보았던 풍물놀이를 산이 아니라 개천 다리에서 보니 울려 퍼지는 리듬이 다르게 들리기도 했어요. 한 해 동안 따로 또 같이 준비했을 작품과 사랑방클럽 회원들이 한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성남살이가 재밌다 싶었어요.



제1야외무대에서 펼쳐진
통기타장르 클럽 연합 공연
| 사진 | 양시원



제2야외무대에서 펼쳐진
국악 색소폰 장르 연합 공연 중 판소리 민요 팀
| 사진 | 양시원

양시원이 견고 쓴 '야외무대들'

축제 마지막 날인 23일. 성남시청을 아우른 4개 무대에서 경기생활예술클럽의 수준 높은 한마당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제1야외무대와 제2야외무대에는 경기지역의 다양한 생활예술동호회들이 모여있어요. 여기서는 통기타 장르와 국악, 색소폰 장르 동호회들의 무대가 이어졌다.

– **제1야외무대** 제1야외무대는 시청을 바라보며 왼쪽으로 정원축제가 펼쳐지는 초입에 위치해 독립적인 <통기타 한마당 교류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대 주변 정원에 캠핑 장비를 가져와 바비큐도 굽고, 텐트와 그늘막 아래 돛자리를 깔고 듣는 피크닉 콘서트를 연상케 했어요. 따라 부르기 쉬운 7080의 익숙한 노래가 많아 가족 같은 분위기로 소박하고 정겨웠습니다. 단지 본 무대와 떨어져 있어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무대를 볼 수 없어 관객이 많지 않았고, 따가운 햇볕 때문에 돌로 된 좌석이 뜨거워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는 단점만 극복한다면 파란 하늘을 벗 삼는 자연과 어우러진 편안한 공연을 기획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 **속속들이 살펴 본 제2야외무대** 제2야외무대가 있던 성남시청 앞 전면도로는 차 없는 축제공간으로 마련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랑방 거리축제가 이어졌어요. 마을공동체들과 연계한 우리 마을 음악대, 우리 마을 미술관, 우리 마을 놀이터, 우리 마을 장터, 우리 마을 방송국, 우리 마을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리마을 음악대
| 사진 | 양시원



우리마을 장터 가족공예
| 사진 | 양시원

- **우리마을 음악대**에서는 정악, 색소폰, 청소년 댄스공연 등 사랑방문화클럽에 소속된 다양한 버스킹 공연들로 길거리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 잡는 듯 했으나 유동 수에 따라 관객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있어 재미는 공연이 많았음에도 못내 아쉬웠어요.
- 다양한 분필로 도로 위를 캔버스로 사용하는 아트 체험 구간인 **우리마을 미술관**은 남녀노소 가족단위 참여가 많았고 도로 위에서 다양한 그림을 그리며 자유롭게 즐기거나 나름 심취한 아이들이 많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 **우리마을 놀이터**는 안산거리극축제에도 참가했던 '예술무대 산 앨리스팀'의 다양한 조형물과 놀이기구인 미로, 그네, 시소 등을 체험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천막 소극장에서 작은 공연들도 있어 인기가 가장 많았던 공연 체험 구간으로 분장한 출연자들이 길거리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 눈길을 많이 끌었다.
- 스네어 드럼을 맨 타악 퍼포먼스팀이 선두에 서고 클럽들과 마을공동체, 안양문화재단 같은 타지역 교류자들까지, 축제의 모든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가면과 의상 등을 착용하고 춤을 추며 뒤를 따랐지요. 다양한 조형물과 함께 대미를 장식한 퍼레이드는 각 클럽별로 고유한 색의 티셔츠를 따로 입고 왔어요. 그 래선지 눈과 귀가 모두 즐겁고 알록달록 다채로웠죠.



우리마을 놀이터(예술무대 산 앨리스 팀)
| 사진 | 양시원



우리마을 놀이터 설치 조형물
| 사진 | 양시원



우리마을 미술관

| 사진 | 양시원

퍼레이드를 위해 광장에 집결한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참가자들

| 사진 | 양시원



조운수가 함께 한 '사랑방 퍼레이드'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끝자락에 사랑방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기다리 인형이 선두에 서고, 빨주노초파 남보 옷 참가팀들, 가면과 분장, 통기타와 노래, 만돌린과 우쿠렐레, 국악과 색소폰, 고운 한복과 멋진 양복, 인형탈과 가발 쓴 사람들, 아장아장 어린이집 아이들과 희끗희끗 시니어 합창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눈골 마을 공동체, 성남 사랑방과 안양 가족합창단이 연이어 뒤를 따랐어요. 다채롭고 흥겨운, 다르지만 하나 된 퍼레이드였습니다. 성남시청 일원을 행진한 퍼레이드 팀들이 차량이 통제된 넓은 도로에서 그 뒤를 따라던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순간, 손인사와 환호 속에서 축제를 함께한 사람들의 무언의 교류가 느껴졌고요. '사랑방의 노래'에서처럼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구경꾼이 되는 축제의 순간이었습니다. 축제의 마무리로 모두가 하나 된 퍼레이드도 좋았지만, 다음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퍼레이드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퍼레이드를 통해, 축제 참가팀들은 자신들의 공연을 알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팀의 공연을 볼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영애가 본 '아름드리 은행나무' 같은 사랑방 퍼레이드

맨 마지막 순서는 퍼레이드였습니다. 퍼레이드의 시작은 '사랑방의 노래' 제창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담아 부르며 한 방향으로 행진했거든요. 열정과 발걸음이 매우 힘차 보였어요. 마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조형물과 직접 제작한 가면과 고유의 색상을 담은 의상을 착용했어요. 활용 후에는 나눔을 했다더라고요. 이런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축제는 성남 시민의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성대한 축제이며 염원이 깃든 행사였습니다. 가을꽃길에 풍성한 시청을 한 바퀴 돌아 6차로의 시청 앞 거리에서 광장까지 대동놀이를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11년의 세월만큼 노력과 성장통을 겪으며 잘 이겨낸 아름답디 은행나무 같았어요. 무엇보다 조형물과 이미지로 마을을 보여준게 인상적이었어요. 놓치지 않길 잘했고요 개막식에서 폐막식까지 성남시민이 직접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모두가 즐거이 어우러지는 3일 동안의 성대한 축제였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퍼레이드 모습

| 사진 | 양시원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퍼레이드 모습

| 사진 | 양시원



음악으로 만나는 축제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마지막날인 9월 23일, 경기지역의 생활예술클럽이 '경기생활예술클럽한마당'을 가졌습니다. 총 38여개 클럽이 찾아와, 다른 지역에 있는 클럽이지만 서로 교류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네 개의 마당이 열렸는데, "국악, 색소폰 마당"(성남시청 분수광장 특설무대), "만돌린, 우쿨렐레 마당"(시청 한누리홀), "통기타마당"

(시청 서편 체육공원 야외무대), "합창마당"(시청 온누리홀)이었지요. 이 중에서 우리는 "만돌린, 우쿨렐레 마당"에 다녀와 글을 적었습니다. 좋은 점 뿐 아니라 아쉬운 점도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앞으로 나아지는 무대를 만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게 담겨 있습니다.

시간 2017년 9월 23일
장소 성남시청 한누리홀

이번 우쿨렐레/만돌린 한마당 교류 프로그램은 성남과 용인, 수원 지역 우쿨렐레/만돌린 동호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주하는 자리였다. 만돌린과 클래식 기타, 콘트라베이스가 대규모 앙상블을 이룬 무대부터 귀여운 복장을 갖춰 입은 우쿨렐레 동호회들의 심수봉 메들리까지, 오랜 연식에서 만들어진 완성된 연주부터 생활예술의 즐거움까지 모두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자리였다.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인 회원들에게서 완성된 연주를 위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가장 주가 됐던 것은 '우리 즐거워 왔으니 즐겁게 하고 가자'라는 분위기였고 이 분위기가 보는 이들에게도 느껴졌다. 이것이 생활예술공연의 참 재미가 아닐까.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특별히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모든 동호회가 한자리에 앉아 서로의 연주를 듣고 박수를 보내며 감상하는 시간이 됐던 것이었다.



성남시청 분수광장 특설무대에서 공연 중인 국악·색소폰 클럽 연합 공연
| 사진 | 정동주

하지만 공간이 주는 아쉬움 역시 있었다. 불친절한 리플렛으로 인해 공연장인 한누리홀의 위치가 초행길인 이들에게는 바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청 입구부터 한누리홀까지 이렇다 할 표식도 없었다. 어차피 어쿠스틱 악기들이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 내년에 비슷한 행사가 열린다면 야외나 로비로 무대를 옮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타악기나 관악기가 없어서 소음도 크게 걱정 없을 것이고, 여러 동호회가 모인 형태라 참여자의 몸집이 크니 무대를 따로 만들지 않고 올해처럼 의자만 놓고 둥그렇게 모인 형태로 해도 충분할 것이다. 오히려 고립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올해처럼 무대 위가 아닌 관객과 같은 눈높이에 앉아서 했던 컨셉이 훨씬 집중도 높고 좋았기 때문이다. 이 좋은 공연을, 손에 꼽을 관객만 보게 된 것이 못내 아쉽다.

| 글 | 배섯별



한누리홀에서 공연 중인 우쿨렐레 만돌린 장르 클럽 연합 공연
| 사진 | 양시원



시청 서편 체육공원에서 야외무대 통기타 클럽 연합 공연
| 사진 | 정동주



온누리홀에서 공연 중인 합창단 공연

| 사진 | 정동주

Part 3.

마을과 함께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청춘을 노래하는 마음

청소년 사물놀이

모두를 위한 퍼레이드, 모두를 위한 연습

우리동네 생활예술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

축제 속 마을

청춘을 노래하는 마음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프로젝트〉은 성남의 문화예술 클럽 간 네트워크 활성화, 클럽과 동네의 네트워크 확대라는 목표와 동시에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클럽들 스스로 기획하고 재단이 실행을 돕는 형태였던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프로젝트는 클럽회원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결과들을 토대로 해마다 그 실행 및 지원방식을 변화·발전 시켜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올해 9월에 열린 “청춘노래자랑”에 대한 심희주님의 기사를 실습니다.



청춘노래자랑

2017 문화공헌프로젝트로 삭막한 공간에서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도시樂콘서트

딩동댕~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 친근하게 들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소리



삭막한 공간에서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도시樂콘서트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SKn테크노파크 입주사원들을 위한 청춘노래자랑이 열렸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예선전을 치른 월별 우승자가 모여 9월 27일 SKn테크노파크 광장에서 본선무대에 올랐다.

SKn 테크노파크의 광장에서 12:10분 점심식사를 마친 사원들은 커피 한 잔을 들고 광장을 거닐다가 객석을 채우고 또 나무그늘과 카페 앞 테라스에서 자유롭게 즐겼다. 잠간의 휴식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이다. 작년에는 공연팀이 무대에 올라 관람형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 노래자랑 기획했다고 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익숙하고 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나도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역 근로자와 인근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에 SKn 테크노파크 관리사무실에 신청한 4팀이 예선의 주인공이 됐다.

사랑방문화클럽 신용배 축제 기획위원의 사회로 청춘노래자랑이 시작됐다.

월별 첫 무대로 프리어댄스 엔터테인먼트의 댄스공연, 사랑방문화클럽 성남뮤젤밴드의 색소폰 연주, 분당요들클럽 등이 흥을 돋워 주었다. 특히 요들공연 무대는 의상의 화려함이 눈을 사로잡고 그 후 노래가 시작되면 정확하게 가사를 알고 따라 부르지 못해도 흥얼거리게 되어 저절로 흥겨워지는 매력이 있다. 누구나 빠져들고 신이난다. 함께하는 관객들의 표정이 금새 밝아지고 박수치며 박자를 맞추게 된다.

매월 콘서트를 거듭할수록 점점 많은 입주사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해 자리를 매웠다. 준비된 객석의 의자가 있었지만 자유롭게 광장을 거닐기도 하고 카페 테라스 벤치에 앉아서 또 나무 그늘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음악소리에 모두 무대에 귀기울이고 있는 듯 했다. 출현진들의 열창에 박수로 관객들이 화답해주는 흥겨운 무대가 이어졌다.

우승자를 가리는 심사기준인 관객호응도와 무대매너, 노래실력 점수를 합산해 본선 진출자는 가려졌지만, 다 같이 함께해서 즐거운 도시락 콘서트 청춘노래자랑이었다.

5월 첫무대 이어서 6.28(수), 7.26(수), 8.30(수) 예선전을 치른 월별 우승자가 모여 9.27(수)

마지막 본선무대에 펼쳐졌다.

이 날 4명의 참가자는 사연이 담긴 노래로 가을에 어울리는 선곡으로 동료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는 등 각자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 노래를 불렀다. 김형미 사회자가 중간에 간단한 퀴즈를 내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증정해 콘서트의 참여와 흥을 돋구기도 했다.

이날 특별히 관심을 끈 것은 1등(대상)에게 부상으로 주어지는 42인치 TV였다.

본선무대의 최고의 우승자는 직접 기타를 치며 SG워너비의 노래 가족사진을 부른 정수철 (SKn테크노파크)씨 였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였어요. 예상 못했는데 기쁩니다. 즐거운 무대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수치며 열심히 응원했다는 홍혜진(이노루션)씨는 “재밌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명예(47.한국전산 S&P)씨는 “직장인들의 문화참여 갈등을 해소시켜 주네요. 즐겁습니다.”라고 말했다.

청춘노래자랑은 2017문화공헌프로젝트로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이 주최하고 성남시와 SKn테크노파크가 후원했다. 문화기획부 이현정 사원은 “올해는 일방적으로 보는 공연에서 입주사원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지역 근로자와 인근 주민 누구나 참여해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SKn 테크노파크에는 540여개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고, 3천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입주자협의회 송영천 회장은 “건조하고 바쁜 일상에서 점심시간의 휴식이 함께 즐기는 문화의 장으로 힘들고 지친 근무지에서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 라며 “내년에는 좀 더 즐거운 도시락 콘서트로 고민해보겠다.”라고 했다.

무대가 펼쳐진 광장 옆에서는 SKn 테크노파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알뜰장터가 함께 진행됐다.

청소년 사물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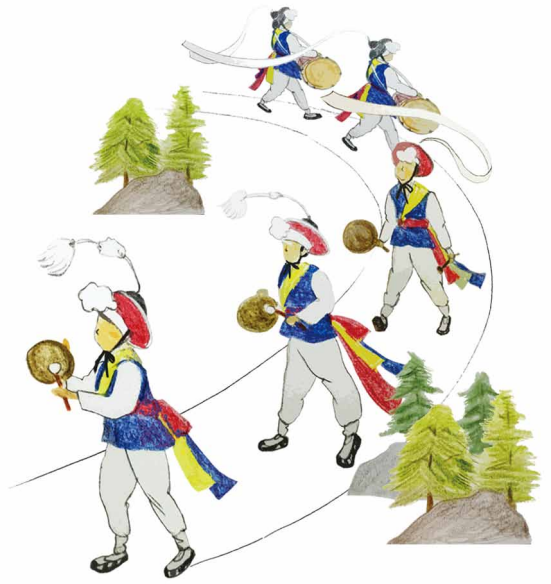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프로젝트〉는 지역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문화공헌프로젝트도 실시했습니다. 지역의 학교밖(가출, 자립, 탈학교 등)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문화 예술교육을 향유하고, 나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함께여는청소년학교가 주된 만남과 교육의 장이었어요.

어떤 과정이었는지 살펴볼까요?

2017년 5월, 함께여는청소년학교에서 ‘어떤 청소년’과 함께 할지 고민해봤어요. 무엇보다 사랑방문화클럽의 ‘사물놀이’팀과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6월, 함께 할 20여명의 청소년을 모집했습니다. 프로그램도 완비했고, 연습을 위한 사물놀이용 악기를 구입했어요.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청소년들과 사물놀이 연습을 했어요, 스무 번 정도를 진행했지요. 사랑방문화클럽에 참여하고, 사랑방문화클럽과 청소년 사물놀이팀이 연합하여 공연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무엇보다 다양한 시민들과 만나며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관계성을 함양하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었고요.

어때요? 사랑방문화클럽은 이렇게 성남시민의 미래, 청소년들과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청소년 사물놀이팀 운영 일정표

일정	내용
201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여는청소년학교를 통한 교육 대상 선정 협의 • 교육 방향 및 주체역사를 표현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 • 교육 프로그램(사물놀이) 및 강사 확정
201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도심 중 · 고 청소년 20여명 이상 참여 • 사물놀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교육용 사물놀이 악기 구입
2017. 6. 26 ~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월요일 교육 진행 (20여회) • 제11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참여 • “분수음악회” 사랑방문화클럽과 청소년 사물놀이 연합 공연 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퍼레이드, 모두를 위한 연습 타악 퍼포먼스

시간 2017년 9월 14일 18시 30분

장소 서현 문화의 집 대강당

이곳은 서현 문화의 집 대강당이다. 망거미가 내려앉는 목요일 6시 30분이 되면, 사람들은 사이드 드럼 혹은 스네어 드럼이라 부르는 작은 북을 연주하기 위해 여기 모인다. 9월 14일 오늘은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서 타악-퍼포먼스 공연으로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한 마지막 연습자리다.

한 명은 큰 북을, 한 명은 심벌즈를, 열 명은 작은 북을 댔다. 열두 명의 드러머가 서로 마주 서 선생님의 지휘에 따라 연습을 시작한다. 군인들이 하는 제식훈련 마냥 걸음을 맞추고 손짓을 맞추며, 리듬을 만들어간다. 정박자로 이뤄진 프레이즈(악절)가 끝나자, 곧장 왼손과 오른손이 엇박으로 움직이는 난코스다. 일명 '박치'라면 바로 따라가기 어려운 리듬이다. 강당의 연주자들 삼분의 일은 헛갈린 듯 눈치도 보고, 틀릴까 노심초사 연신 다른 사람의 복채를 바라본다. 그래도 모두들 미소 띤 얼굴만큼은 그대로다.

공연을 제안한 곽윤부 관장님은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퍼레이드를 시작한 지 3년째다. 매해 피켓이나 가면, 탈 등 공예품을 만들어 퍼레이드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노하우와 경험이 남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모두가 시간의 흐름따라 성숙해 질 수 있는 타악 퍼포먼스 퍼레이드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올해의 즐거움과 뿌듯함(?)이 해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숙성될 지 시나브로 기대된다.

이번 퍼레이드를 위해 사람들은 세 달 동안 딱 열 번만 모여 연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리듬이 어려운 탓일까? 열정 탓일까? 애초 계획보다 더 자주 모이게 됐고, 더 열심히 연습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들은 마디마디를 이어 프레이즈를 만들고, 프레이즈를 연결해, 곡을 만들었다. 그래선지, '탁' 하는 짧은 북 소리 하나에 재미 하나, 열정 하나의 음표가 보이는 것 같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 손사래 치지만, 2017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퍼레이드에 한마음으로 울리는 그들의 작은 북소리가 어떻게 거리를 휩쓸고, 누구의 가슴을 쿵쿵거리게 할 지 자못 설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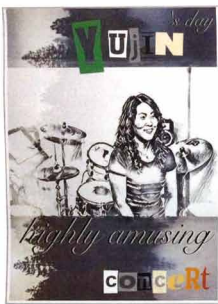
| 사진 | 정동주 · | 글 | 양시원



우리동네 생활예술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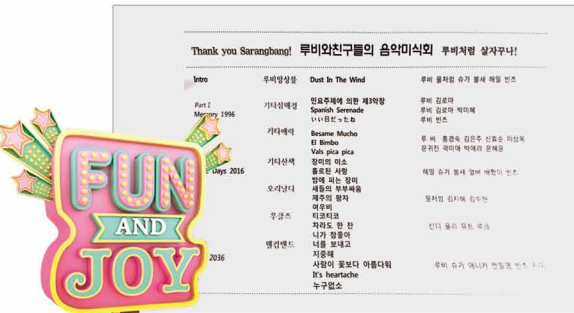
시간 2017년 9월 9일 19시 30분

장소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드디어 기다리던 ‘우리동네 생활예술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의 공연이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구미동 ‘연음홀’에서 열렸다. 구미도서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을 따라 들어가니 ‘루비와 친구들의 음악미식회’라는 현수막이 건물 입구에서부터 반갑게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하 1층 홀로 들어서자 객석보다 그리 높지 않은 무대와 4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그 한 편에 자리 잡은 음향시설들이 오늘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섯 시가 되자 ‘사랑방슈퍼스타’ 주인공인 루비, 박유진 씨가 무대에 올랐다. ‘루비앙상블’의 ‘더스트 인 더 윈드’를 시작으로, 루비와 그녀의 사랑방문화클럽 안 밖의 친구들이 함께 하는 공연이 이어졌다. 때때로 우수에 차거나 감미롭거나 정열적인 기타 팀 ‘기타삼매경’, ‘기타애락’, ‘로망스기타합주단’, ‘기타산책’, 음악을 통해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오르고 싶은 오카리나 팀 ‘오리날다’, 머리에 쓴 화관과 악기 꽃장식으로 한껏 하와이 분위기를 낸 우쿨렐레 팀 ‘우쿨즈’, 마지막으로 그 어느 팀보다 열정적이고 힘찬 사운드를 들려 준 ‘웰컴밴드’. 이들은 루비와 함께 또는 해금, 멜로디언, 첼메, 카혼, 셰이커를 가미하여 볼거리와 들을 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며 다양한 곡들을 연주하였다.



팝송, 가요, 민요주제에 의한 곡, 스페인 세레나데, 기타, 우쿨렐레, 오카리나 작품들이 연주 되는 동안 젬베, 기타, 드럼 연주, 노래 그리고 춤까지 모두 보여준 오늘의 주인공 박유진 씨는 이번 공연에서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사랑방슈퍼스타'임을 확실히 알렸다.

오늘 공연은 긍정적으로, 신나게, 즐겁게, 정열적으로 그리고 '함께' 사는 박유진 씨의 인생철학과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긴 무대였다. 1부의 'Memory 1996', 2부의 'These Days 2016', 3부의 'Forever 2036'이란 타이틀이 말하듯이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루비 '박유진'의 생활예술인으로서의 행진은 계속 될 것이다.

| 사진 | · | 글 | 조윤수



축제 속 마을

2017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생활예술이 꽃피는 마을이라는 주제에 맞게 사랑방문화클럽과 마을이 함께 하는 축제를 처음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데 같이 먹는걸 나누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마을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먹거리와 시골시골 사람들의 소리가 모아지는 장터. 이 소식을 마을로 전하는 라디오방송국.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모든 시민들의 축제가 되기 위해 마을주민들과 만난 첫 시작. 그 모습을 돌아보고 전합니다.

이영애의 우리마을 장터 음식 이야기

먹을거리의 행렬은 무척 다채롭고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올 해 처음 참여했는데 정성이 깃든 수제 핫도그, 커피콩 빵, 생과일쥬스, 꼬마김밥, 더위를 달래준 아이스티, 김치전, 야채전, 논골아빠들의 닭꼬치구이까지 다양했어요. 게다가 너른 초록잔디 위에 자리 깔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야외놀이의 행복한 풍경들이 펼쳐진게, 한낮의 햇살만큼이나 활기넘치고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건너편에는 '우리 마을 방송국' 찾아가는 라디오라는 취지가 이색적이고 즉석에서 업서를 받아 사연 읽어주기, 시민들의 신청곡을 들으며 즐거움과 지루할 틈 없는 거리풍경이었습니다. 2층 부스의 라디오 방송은 눈에 띄어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었으나 음악과 음식을 펼쳐 놓을 노천 테이블이결에 나란히 있었다면 더욱 금상첨화가 아닐까, 도로를 차단했기에 공간 확보가 넓은 곳을 잘 활용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벼룩시장의 실속 있고 저렴한 물건 찾기는 또한 쓸쓸한 재미를 주었습니다. 짧게 우리마을 장터 음식을 소개한다면, 아마 아래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출한 오후에 어쩔 이리도 딱 맞는 김치빈대떡
2장에 5,000원 ~ 최고의 우리 입맛이죠!
어르신들은 옛날과자, 어린이들은 떡볶이 외,
골라먹는~ 재미가 다양해요

마을마다 차려놓은 부스 풍경 | 사진 | 정동주



양시원이 돌아본 마을 프로그램

- 우리마을 장터는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벼룩시장과 아트마켓으로 본인이 쓰던 물건을 판매하는 벼룩시장과 공예품을 파는 아트마켓이 물려있어 한가롭게 고르고 구경하는 눈요기하는 맛이 있었어요.
- 성남라디오제작단, 성남FM, 돌고래시장 방송국 등 성남 안에서 팟캐스트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 활동 중인 동호회들의 연합 라디오 무대를 펼친 사랑방라디오 구간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었고 컨테이너 위에 2층 테라스처럼 라디오 무대를 차려 멀리서도 눈길을 끄는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라디오처럼 사방이 투명한 부스를 만들거나 마이크를 들고 현장으로 내려왔으면 좀 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재미있는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우리마을 방송국 | 사진 | 양시원

Part 4.

프로젝트북을 만드는 일
‘생활예술, 말하기 · 듣기 · 쓰기’를 잘 하는 방법



프로젝트북을 만드는 일

소준철 · 현승인

이번 프로젝트북은 사랑방문화클럽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생활예술을 기록하고,
직접 관찰/취재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생활예술 '기획워크숍'과 '기록워크숍'을 마련하여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활예술 기획워크숍 [어떻게, WORKSHOP]

[어떻게, WORKSHOP]은 시민들이 생활예술 기록에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자발적으로 기록 기획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맨 먼저, 생활문화예술과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 살펴보고, 까먹기 쉬운 '글쓰기'팁과 '인터뷰'에 필요한 팁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어떻게 쓸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회차	내용	
1회차 [오리엔테이션] 6월 21일(수) 13:00~16:00	1교시	사랑방문화클럽 과거와 현재 살펴보기(성남문화재단 박지훈 부장)
	2교시	사랑방 프로젝트북 기록 워크숍의 의미와 과정 소개
2회차 [글쓰기는 어떻게?] 6월 28일(수) 13:00~16:00	1교시	문자와 문장과 문단과 글과 책 (1) 기초에 대한 의견 나누기 (2) 자주 틀리는 맞춤법
	2교시	"글쓰기" (1) 묘사하는 짧은 글쓰기 (2) 설명하는 짧은 글쓰기 (3) '아트뷰' 기사 함께 읽기
	3교시	"꼭지 만들기: 글들이 모이면?" (1) '2016년 프로젝트북'에 대한 의견 나누기 (2) 구성 기획 맛보기
3회차 [인터뷰는 어떻게?] 7월 5일(수) 13:00~16:00	1교시	"인터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일들" (1) 상대를 알아보고 사전질문지 만들기 (2) 실수를 줄이기 위해 꼭 준비할 도구들
	2교시	"인터뷰하기: 인터뷰와 수다는 다르다!" (1) 인터뷰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 (2) 인터뷰 연습하기
	3교시	"인터뷰를 마치고 해야 할 일들" (1)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 (2) '돌이키며' '듣고' 글로 옮기기
4회차 [기사는 어떻게?] 7월 12일(수) 13:00~16:00	1교시	좋은 기사 살펴보기
	2교시	기사 기획하기
	3교시	기사 쓰기 연습

(1) 인터뷰는 어떻게?

인터뷰의 순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로 본다면, “A 인터뷰 준비 → B 인터뷰 진행 → C 인터뷰 생산자료 정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준비 과정은 사전 취재를 통해 대상을 정하고, 대상에게 접촉하여 일정 / 장소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사전 취재 과정에서 질문지를 만들어 정해진 인터뷰이에게 보내면 준비는 어느 만큼 끝난 셈입니다.

A 인터뷰 준비				
A.01	사전 취재			
	1) 이슈 찾기 2) 취재 방식 정하기: 전문가 인터뷰, 현장 인터뷰, 현장 스케치, 잠입취재 3) 관련 기사 검색 4) 각종 유관기관 보도자료 검색			
A.02	대상 정하기			
	1) 인터뷰 가능 대상자 목록 만들기 2) 직접 연락하기 / 소개로 연락하기			
A.03	일정 잡기			
A.04	장소 정하기			
A.05	질문 목록 만들기			
	1) 공통질문 / 특수질문 2) 사전 인터뷰지, 인터뷰이에게 발송하기			
A.06	녹음기 준비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인터뷰 과정에서 사용할 '녹음기'와 '메모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요사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스마트폰이 '비행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녹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인터뷰 시작과 끝에서 일정한 '인사' 멘트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맨 첫 인사는 “성남생활예술기록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취재를 위해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시 ○분 (소속) (이름) 씨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로, 인터뷰 녹취와 관리에 있어서 언제 누구와 한 인터뷰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인터뷰 분위기를 설정하는게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감정변화를 살피고 불편한 내용은 뒤로 미뤄두거나 삭제하는 노하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질문하며 항상 후속 질문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가급적 단순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B 인터뷰 진행					
B_01	녹음기 · 메모장 확인				
	1) 비행모드 2) 키워드(및 시간) 메모				
B_02	인터뷰 목적 설명 · 근황 묻기				
B_03	인터뷰 동의 구하기				
	멘트 :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B_04	인터뷰 시작				
	멘트 : “성남생활예술기록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취재를 위해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시 ▢분 (소속) (이름) 씨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1) “허세, 애걸복걸, 첫 데이트의 정중함” 중 ‘대상’에 따라 인터뷰 시작을 달리한다. 2) 감정 변화를 살펴야 한다. 불편한 내용은 뒤로 미루기. 3) 묻지 않은 질문을 파악하기. 그리고 후속 질문을 항상 생각하기. 4) 가급적 질문은 단순하게 하기. 이야기를 끌어내야 한다.				
B_05	중간 휴식				
B_06	인터뷰 끝				
	멘트 :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가 끝난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인터뷰 현장에서 적은 메모를 정리해야 하고, 녹음파일을 녹음기에서 따로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일정한 이름을 짓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 기사를 쓰려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리를 글로 옮기는 작업이고, 아래 표에 제시한 oTranscribe.com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게 편합니다. 녹취록을 만들고 나서 기사를 쓰면 된답니다.

C 인터뷰 생산 자료 정리					
C_01	메모 정리				
	사진으로 기록 저장하기				
C_02	녹음파일 옮겨 저장하기				
	파일이름(예) SN_HSY_01_20170712.m4a [순서: 성남_구술자 이름_회차_일시.m4a]				
C_03	녹취록 만들기				
	녹취에 편한 서비스 http://www.oTranscribe.com 1) 중간 중간 저장하기 2) SN_HSY_01_201712.hwp (녹음파일과 같은 제목 사용 권장)				

C_04	기사(그리고 요약문) 만들기			
	1) 새로운 내용과 뻘한 내용 고르기 2) 지나친 미사여구는 필요없다. 3) 필요한 이야기로만 요약문 만들기 4) 필요한 자료는 스마트폰과 웹(이메일)과 컴퓨터 등에 복사하여 저장할 것			

(2) 그렇다면, 기사는 어떻게 쓸까요?

첫째, 기사는 아이টে를 정하기로 시작합니다. 관심 가는 '이슈'를 찾고, 그 이슈에서 기자가 '집중하는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재방식을 정하는데, 취재방식으로 개인 인터뷰, 현장 인터뷰, 잠입취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좌담이나 원고 청탁으로 기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예술인과 생활예술활동에 대한 인터뷰로 주로 개인 인터뷰와 현장 스케치, 좌담 등을 택하면 됩니다.

둘째, 아이টে를 정했다면, 그 아이টে에 대한 사전 취재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보도된 기사를 검색하거나, 유사기관의 보도 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는 사람을 통해 사전 정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아는 전문가를 통해 그 아이টে에 대한 사전 정보를 쌓는 거죠.

셋째, 적당한 인터뷰이를 찾아야 합니다. 인터뷰이를 직접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인터뷰이를 만나면 좋을지 추천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물색해야 합니다.

넷째, 앞서 설명한대로 인터뷰를 하면 됩니다.

다섯째, 인터뷰가 끝난 후, 인터뷰 중에 나온 이야기들에 대한 자료를 재조사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제를 심화시켜야 하죠.

여섯째, 이제 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자료들이 책상 위에 놓여있겠죠? 취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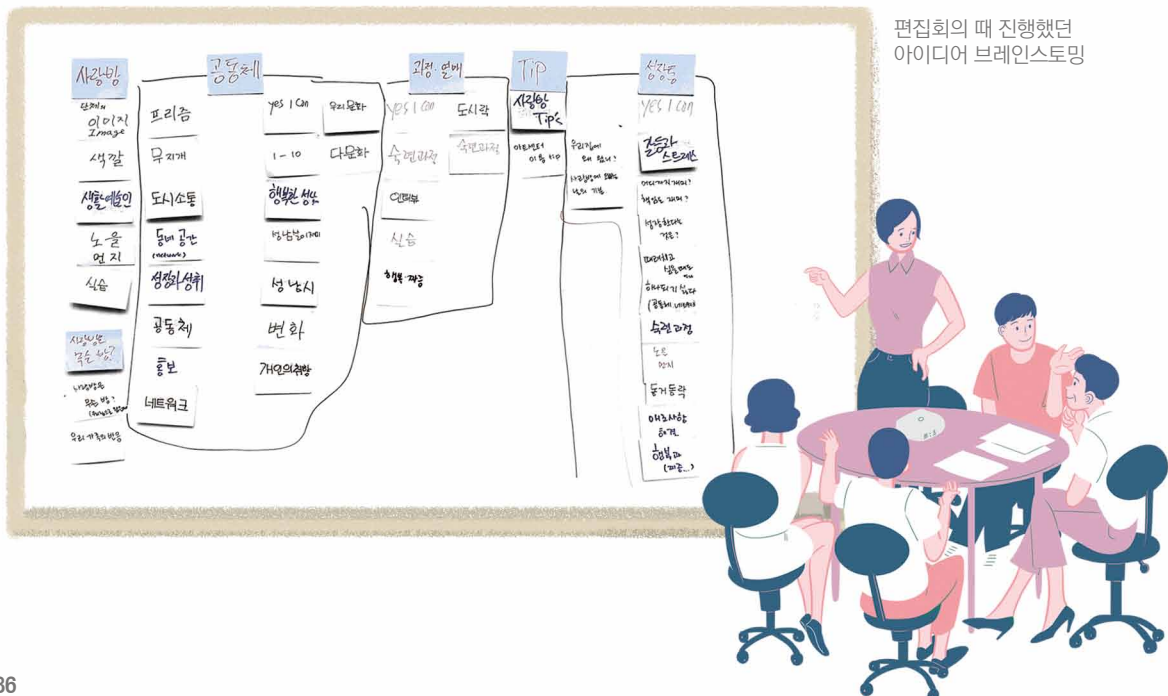
일곱째, 본래 구상에 맞춰,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재구축할지 구상해야 합니다. 이때,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마인드맵을 해도 좋고요.

여덟째, 이제 기사를 씁니다. 제일 먼저, 중제목과 소제목을 작성합니다. 팀을 드리자면, 한 기사당 한 개 내지 두 개의 중제목이 좋고요, 두 문단이나 세 문단에 하나 정도 소제목을 달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목들을 설정하고, 문단 별로 각 문단의 핵심이 되는 첫 문장을 적습니다. 이제 각 문단별로 살을 붙여 글을 완성하면 됩니다.

둘째, 생활예술 기록워크숍 [이렇게, 편집회의]

[이렇게, 편집회의]는 기획워크숍을 통해 익힌 노하우를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생활예술큐를 기록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기록의 과정과 결과물을 스스로 기획하고 작성하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지금 보시는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은 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회차	내용
1차 편집회의 7월 27일(목) 10:00~13:00	- 사랑방프로젝트북 인터뷰 꼭지 기획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축제 기록 회의
2차 편집회의 8월 10일(목) 10:00~13:00	- 기획에 맞는 인터뷰이 물색 및 섭외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축제 기록 회의
3차 편집회의 8월 17일(목) 10:00~13:00	- 인터뷰 주제와 질문 구체화하기 1차 - 인터뷰이 섭외
4차 편집회의 9월 6일(수) 13:00~16:00	- 인터뷰 주제와 질문 구체화하기 2차
5차 편집회의 11월 7일(수) 12:00~15:00	- 인터뷰 원고 작성 회의



프로젝트북 제작 활동일지

배셋별 (시민에디터)

이 프로젝트북은 6개월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 시민에디터들이 사랑방문화클럽의 현장을 취재하고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생활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을 직접 선정하여 인터뷰 · 좌담을 진행한 기록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17년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본 프로젝트 북은 또 하나의 생활예술입니다. 시민에디터로 참여한 배셋별 님의 '활동일지'를 실습니다.

나는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 북의 내부자이자 외부자였다. 시민에디터 중 한 사람이지만, 기획자인 현 선생님과 개인의 인연으로 참여하게 됐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들은 성남 시민이자 '서른이'로 이미 오랜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남시민도 아니고 사랑방문화클럽과 관련된 일에 처음으로 참여했지만, 한편으론 같은 시민에디터인 선생님들의 문제의식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자리했다. 또한, 나는 직업예술인이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핑계로 그 어떤 생활예술인들 보다 삶에서 예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불분명한 정체성의 소유자이다. 이런 나에게 사랑방문화클럽은 과연 삶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고민을 다시 한 번 나에게 던지게 됐던 자리였다. 이런 외부자이자 내부자인 나의 시선에서 이번 프로젝트 북 제작 활동일지가 작성될 것이다.

지난 7월 우리는 사랑방 프로젝트 북 기획기록 워크숍으로 처음 성남에 모였다. 4주짜리 기획기록 워크숍은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 북의 기반을 다질 교육과 만남을 위한 자리였다. 그렇기에 애초 원대한 나의 계획 속에는 생활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글쓰기 교육에 대한 각오가 단단히 되어있었다.

그러나 모임의 자리가 그렇듯 늘 개인의 뜻대로 되진 않는다. 그리고 때론 그 뜻하지 않은 길에서 더욱 재미난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 우리의 워크숍은 특별히 A가 B를 향해 교육한다기보다 서로가 사랑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으로 열려있게 됐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어느 시점에서 항상 불타는 문제의식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사랑방문화클럽의 목적과 현실, 생활예술에 대한 각자의 개념, 그리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사랑방 문화클럽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까지. 프로젝트 북의 꼭지들은,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는 만큼 자부심과 긍정적 가치를 전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저 우리끼리 수고했다 추켜세우는 것만으로 채우기에는 어쩐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공치사만으로 가득한 백과사전이 아닌, 얇은 이야기 책자일지라도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이야기가 됐으면 했다. 욕심이 생기는 만큼 참으로 어려운 기획과 고민이 오갔다. 우리의 욕심대로라면 인터뷰를 통해 꽤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가야 했으나, 평소에 방송과 시민기자 일을 해오시던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기사 작성은커녕 모두 이렇다 할 인터뷰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반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기대 반으로 교육받고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뜨거운 여름이 지나갔다.

서늘한 공기가 지나갈 무렵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 북 제작이 시작됐다. 언제나 그렇듯 공동작업의 절반은 일정 잡는 일이 아니겠는가. 인터뷰 한번마다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외에도 사진작가, 때에 따라 프로젝트 북 기획자분들과 재단에서도 함께 참여해야해 날짜 잡는 일이 말 그대로 일이었다.

그중 스케줄 잡기의 하이라이트는 사랑방문화클럽에 몸담은 5인의 '좌담' 꼭지였다. 좌담은 인터뷰어도 두 명이었으며 제작 관련 멤버들까지 총출동해서 제작자만 6명에 인터뷰이는 5명으로, 총 11명이 모이는 큰 자리였다. 초기 스케줄 정리 과정은 제법 순조롭게 이뤄지는 듯했지만 인터뷰 전날 스케줄 문제로 갑작스러운 멤버 교체, 당일 아침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며 인터뷰 현장에 도착했지만, 다행스럽게도 5인이 무사히 구성돼 좌담이 진행됐다. 스케줄 문제에 한정된 시간이라는 약간의 불안 요소 속에서 좌담이 시작됐지만, 막상 시작된 후에는 점점 걱정이 사라졌다. 사랑방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헛바퀴 같을 수 있는 삶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즐거움을 찾으려는 이들이다 보니, '이야기거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인지라 어떤 기획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부자인 나의 눈에 닿는 사랑방을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서, 날 발견했다. 내가 진짜 내부자가 됐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강렬한 의욕과 기쁨, 치열함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때론 매너리즘과 현실의 압박과 나의 부족함에 대한 자괴감이 찾아오고, 처음의 나를 떠올리며 또는 이제 무거워진 어떤 책임들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예술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참 동일했다. 누군가는 좋아하는 일 하고 살아서 참 좋겠다고 그저 부러워하고 때론 '팔자 좋은 이' 취급을 하지만,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의 지점들은 짐작할 수 없으리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난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방구석에서 홀로 구멍 난 마음을 열기설기 꿔매는 동안, 미처 꿔매지지 못한 마음들이 너무 많이 쌓여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쌓여버린 마음들은 나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사랑방을 이끌어 오던 수많은 주체와 마주하던 이번 여름에서 가을까지의 시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 다소 편안하고 둥글게 되어있었다.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불행하지 않은 목소리로 "그래 어떻게든 그렇게 또 살겠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소중하게 모은 이야기들을 한 께로 엮어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온전히 글을 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다른 잡무와 세상살이로 쫓겨 다니는 동안 마음 한구석 못다 한 숙제인 프로젝트 북이 화를 내며 몸을 부풀리고 부풀리다가 뺨 터져 나왔다. 기획자 선생님의 애타는 원고 독촉 전화에 걱정 전혀 하지 말라고 큰소리 친 건 사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에 미뤄놓은 것들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지금 성남 곳곳에서 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하며 노트북 앞에 앉아계실 지도 모를 에디터 분들과 누구보다 초조할 기획자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응원의 말을 보내며 글을 마친다.

편집자의 짧은 과정 소개

프로젝트북 제작 프로그램은 7월에 시작됐다. 작업을 해 나갈 시민에디터 모집이 완료됐고, 바로 일종의 몸풀기와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한 기획워크숍을 4회에 걸쳐 진행했다. 글쓰기와 인터뷰하기에 대한 기초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었다.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의 직접 기록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8월에는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북 구성기획을 했다. 애초에 편집자들이 가져 온 구성안을 뜯어 고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들었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취재해야 할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을 선별했다. 그리고 일종의 특집을 마련했다.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을 인터뷰 하자", "다양한 연차의 사랑방클럽장들의 의견을 듣자", 이런 것들 말이다. 계획대로 9월에는 '한마당'과 '축제'로 달려가 정신없이 취재를 했다. 그리고 10월에는 인터뷰를 갖고, 다양한 사랑방클럽장들과 함께 좌담을 했다. 내년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북'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올해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남긴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활예술 기획워크숍	6/21, 6/28	7/5, 7/12					
생활예술 기록워크숍 (취재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조사 • 한마당 / 축제 취재 • 개인 인터뷰 					
편집/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담 • 프로젝트북제작기 • 사랑방정보관 		
프로젝트북 발행							

Part 5.

사랑방문화클럽 정보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을 위한 팁!
사랑방문화클럽 참여 동아리 목록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을 위한 팁!

사랑방문화클럽 새내기와 베테랑을 위한 팁들을 모았습니다.
연습에서 공연과 전시 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들을 살펴보세요.

1. 공연과 전시 소식이 궁금해요!

성남에서 열리는 공연과 전시 소식이 궁금할 때

어떻게? 성남아트센터에 방문
어디서? 홈페이지 <http://www.snart.or.kr>에서 확인
무얼하지? 공연과 전시의 일정을 확인하고, 예매도 할 수 있어요.

2. ‘문화가 있는 날’을 즐기고 싶어요!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과 ‘문화가 있는 날’을 가지세요.

언제? 매월 마지막 주
어떻게?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http://www.culture.go.kr/wday/index.do>에서 확인
어디서? 우리시에 있는 공공문화시설!
무얼하지? 공짜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과 전시 등을 관람하세요.

공공문화시설을 쓰는 흠어볼까요?

종류	이름	홈페이지	연락처
박물관	판교박물관	http://www.pangyomuseum.go.kr	729-4536
도서관	구미도서관	http://www.gm.snlib.go.kr	729-4692
도서관	논골도서관	http://cafe.naver.com/nongolib	732-9581
도서관	무지개도서관	http://gm.snlib.go.kr	729-4772
도서관	분당도서관	http://bd.snlib.go.kr	729-4662
도서관	성남수정도서관	http://sj.snlib.go.kr	743-9600
도서관	성남중원도서관	http://jw.snlib.go.kr	752-3916
도서관	운중도서관	http://uj.snlib.go.kr	729-4374
도서관	중앙도서관	http://ct.snlib.go.kr	729-4634
도서관	판교도서관	http://pg.snlib.go.kr	729-4586
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http://snart.or.kr	783-8000

3.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요!

연습하고 토의하고 공연할 공간이 필요할 때?

무엇을? 성남에는 다양한 공유공간이 있어요. 무엇보다, 성남사랑방문화클럽 동아리는 성남아트센터의 공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앙상블시어터 3층 연습실과 큐브플라자 1층 연습실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2018년 1월 셋째주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성남시청에서는 공공기관의 공간을, '공유성남'사이트와 성남시평생학습원 웹사이트에서는 '공유공간'을 검색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아요.

- 성남시청 : <http://www.seongnam.go.kr/city/1000636/10479/contents.do>
- 공유성남 : <http://share.seongnam.go.kr>
- 성남시평생학습원 : <http://lll.seongnam.go.kr/seongnam/vicegerent/vicegerent.do>
그리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3.1 80명 이하의 공간을 빌려드립니다.

구분		이름	인원	연락처	
시청		산성누리(3층)	41	행정지원과	729-2188
		탄천관(3층)	13		
		모란관(3층)	17		
		율동관(3층)	35		
		누리홀(1층)	-		
		너른뚝(야외)	-		
성남아트센터	회의실 (10일 이전)	컨퍼런스홀	80	성남문화재단	783-8195
		뮤즈홀	30		
	연습실	앙상블시어터 3층	25	성남문화재단	031-783-8127
		큐브플라자 1층	25		
	성남미디어센터	영상스튜디오	-	운영지원팀 http://snmedia.or.kr/ rental/space.asp	724-8356 724-8357
		사진스튜디오	-		
		소리스튜디오	-		
		일반강의실	16		
		편집실	-		
		동아리방1	6		
		동아리방2	6		
		디지털교육실1	16		
		디지털교육실2	12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회의실	25	행정지원	729-6024
분당구청		소회의실	40	행정지원과	729-7025
판교어린이도서관		시청각실	64	판교어린이도서관	729-4398

수정구 주민센터	신흥1동	회의실	25	-	729-5602
	신흥2동	다목적실	40	-	729-5622
	신흥3동	소회의실	27	-	729-5642
	태평1동	중회의실	30	-	729-5662
	태평2동	대회의실	50	-	729-5688
	태평3동	소회의실	30	-	729-5702
	수진1동	회의실	25	-	729-5742
	수진2동	회의실	25	-	729-5762
	단대동	회의실	25	-	729-5782
	양지동	다목적실	60	-	729-5822
	북정동	회의실	20	-	729-5842
	위례동	회의실	30	-	729-5952
	신촌동	회의실	15	-	729-5862
	시흥동	소회의실	30	-	729-5902
중원구 주민센터	성남동	문화사랑방	25	-	729-6602
	중앙동	문화강좌실	20	-	729-6622
	금광1동	회의실	60	-	729-6642
	금광2동	회의실	30	-	729-6662
	상대원1동	대회의실	30	-	729-6722
	상대원2동	소회의실	20	-	729-6742
	상대원3동	회의실	25	-	729-6762
	하대원동	회의실	28	-	729-6782
분당구 주민센터	분당동	다목적실	40	-	729-7602
	수내1동	회의실	35	-	729-7622
	수내2동	대회의실	25	-	729-7642
	수내3동	다목적실	25	-	729-7662
	정자동	강의실	50	-	729-7682
	정자2동	회의실	35	-	729-7702
	정자3동	회의실	20	-	729-7722
	서현1동	대회의실	70	-	729-7743
	서현2동	회의실	30	-	729-7762
	이매1동	다목적실	50	-	729-7783
	이매2동	다목적실	50	-	729-7802
	야탑1동	회의실	30	-	729-7822
	야탑2동	다목적실	40	-	729-7842
	야탑3동	다목적실	40	-	729-7862
	금곡동	글로벌어학실	20	-	729-7903
	구미동	중회의실	20	-	729-7942
	구미1동	머내방	30	-	729-7922
	백현동	취미교실	30	-	729-8702

3.2 100명 이상의 공간을 빌려드립니다.

구분		이름	인원	연락처	
시청		온누리(1층)	600	행정지원과	729-2188
		한누리(3층)	180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오페라하우스	1,808	(정해진 시기 신청 및 대관심사위원회 결정)	
		콘서트홀	1,102		
		양상블시어터	378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11,000	중앙공원	711-7762
	미술관	갤러리808	-	(정해진 시기 신청 및 대관심사위원회 결정)	
		큐브미술관	-		
		반달갤러리	-		
		상설전시장	-		
	성남미디어센터	상영관	98	운영지원팀 http://snmedia.or.kr/rental/space.asp	
수정구청		대회의실	185	행정지원과	729-5022
		소회의실	30		
중원구청		대회의실	100	행정지원	729-6024
		소회의실	25		
분당구청		대회의실	140	행정지원과	729-7025
		소회의실	40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100	도서관지원과	729-4613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극장	206	도서관팀	729-4352
분당도서관		시청각실	172	분당도서관	729-4653
구미도서관		시청각실	120	구미도서관	729-4684
판교도서관		시청각실	152	평생학습지원팀	729-4574
판교어린이도서관		시청각실	64	판교어린이도서관	729-4398
운중도서관		시청각실	97	운중도서관	729-4372
수정구	산성동 주민센터	컨벤션홀	150	-	729-5802
중원구	은행2동 주민센터	은행실(회의실)	100	-	729-6702
	도촌동 주민센터	대회의실	100	-	729-6802
분당구	분당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40	-	729-7602
	수내1동 주민센터	회의실	35	-	729-7622
	수내2동 주민센터	대회의실	25	-	729-7642
	수내3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25	-	729-7662
	판교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100	-	729-7882
	삼평동 주민센터	대강당	100	-	729-7982
	운중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200	-	729-7962

4. 마을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요.

마을공간을 사용하고 싶어요!

마을공간이 몇몇 마을에는 마을사람들을 위한 거점공간이자 예술가들의 창작을 돕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무언가요? 우리는 '마을공간'이라 불러요. 2017년, 지금 성남에 있는 '마을공간'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어요.

공간이름	주 소
책이 있는 사랑방(1301동) 즐거움이 있는 공유공간(1310동)	판교 산운마을 13단지 다목적실 2곳(1301동 1층, 1310동 1층)
마을북카페	중원구 중앙동 3257번지 1층(마을카페)
중원어울림공동체센터	중원구 하대원동 154-19번지 3층(중원어울림공동체)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수정구 태평3동 4144(open Space block's)
공룡책방	단대동 101번지 단대휴먼시아 202동 1층(공룡책방)
민들레작은도서관	중원구 성남동 2480번지 1층(민들레작은도서관)
도에 마실카페	중원구 하대원동- 둔촌대로 363번길 9(호야경로당 2층)
마을아지트 - 아 · 사 · 모	중원구 상대원동 2060 지하
마을놀이터 시작	중원구 도촌로 7번길 13(마을놀이터 시작)
위브 싸롱	분당구 금곡동 정자일로 55 107-1(위브싸롱)

5. 악기를 빌리고 싶어요!

연습용 악기가 필요해요.

어디서? 악기도서관 『악기랑』 (성남아트센터 안 큐브프라자 2층)
언제? 화요일에서 토요일, 10시부터 17시 사이
누가? 성남시민과 성남시 재직 직장인, 성남시 소재 대학(원)생, 성남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대여 2일 전에 전화(☎783-8159)로 예약하세요.
무얼 빌리지? 초보자와 연습용 악기(현악기, 관악기, 국악기, 타악기 등)를 빌릴 수 있어요.

6. 촬영 장비가 필요해요!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활동 사진을 찍고 싶어요!

어디서? 성남미디어센터(성남아트센터 안)
언제? 월요일과 토요일엔 10시부터 17시까지, 화요일과 금요일엔 10시부터 21시까지
누가? 교육받은 정회원만 대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홈페이지(http://snmedia.or.kr/rental/index_equipment.asp)에서 대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무얼 빌리지? 촬영에 필요한 장비와 스튜디오가 있어요. 촬영장비(캠코더, 디지털카메라, 카메라렌즈, 트라이포드, 슬레이트, 스마트폰촬영세트), 조명(LED조명, 반사판, 스트로보), 마이크(붐마이크, 무선마이크, DSLR용 마이크, 오디오 녹음기), 맥북 프로 15", 외장하드를 빌릴 수 있어요.

7.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요!

아래에 알려주세요.

- 누구에게? 성남문화재단에 알려주세요.
 -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담당 부서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에 이야기해주세요.
- 성남시에는 여러 인터넷언론사가 있어요.
 - 성남비전, 에이타임즈, 스포츠성남, 성남미디어, 성남굿뉴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한성뉴스넷, 성남연합신문, 분당판교뉴스, 성남포커스, 내일을여는신문, 아리랑저널, 뉴스채널S
- 방법 언론사의 '기사제보' 서비스와 '대표이메일'을 이용해, 성남시의 언론사에 널리 알리세요.

8. 만약 연습이 늦게 끝나 택시를 이용한다면?

YES콜을 이용하세요.

-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성남 YES콜"을 내려받으세요.
 혹은 푸른콜(☎755-4000)과 성남브랜드콜(☎721-7000)에 전화해보세요.

9. 사랑방문화클럽 소식이 궁금하다면?

웹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 어떻게? 주요한 소식은 성남아트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소는 http://www.snart.or.kr/web/cms/?MENUST_ID=21822 인데요,
 온라인 카페 "사랑방문화클럽" <http://cafe.naver.com/snsarang>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arangbang/>)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을 검색해보세요.

사랑방문화클럽 참여 동아리 목록

1. 공연 분야 동아리 (177개)

지역	장르	클럽명	창립년도	가입년도	가입일
분당	가야금	세가동(세경가야금동아리)	2008	2013	3. 23
분당	가야금	미소가야금병창	2012	2013	5. 14
성남	가야금병창	어울림가야금병창	2016	2016	2. 24
수정	각설이	아라리오	2008	2009	3.31
성남	경기민요	소리랑	2016	2016	7. 6
분당	관악	분당윈드오케스트라	1994	2007	6.12
분당	관악합주	99뽕뽕클럽	2012	2013	9. 24
분당	관현악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1998	2008	3.12
성남	관현악	성남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	2017	2017	2. 1
분당	국악실내악단	성남세경국악실내악단	1998	2013	3. 23
분당	기타	푸른소리통기타	2012	2013	3. 23
성남	기타, 노래	어쿠스틱캐터스	2014	2014	11.11
중원	난타	타락난타동호회	2011	2013	5. 28
성남	난타	라벨비	2013	2016	2. 24
성남	난타	화랑난타	2014	2016	11. 2
수정	남도민요	락&판	2010	2013	7. 23
성남	남성합창	남성합창단 등대	2014	2015	1.13
성남	남성합창	그린비남성합창단	2013	2015	3.12
성남	노래	마중물	2013	2014	11.11
분당	노래	여우&늑대울림앙상블	2012	2016	01. 14
성남	댄스스포츠	블루밍	2014	2015	6. 18
분당	라인댄스	S라인 댄스	2011	-	-
성남	리코더	piacere recorder ensemble	2003	2016	5. 11
분당	만돌린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1999	2007	6.18
분당	만돌린	미멜만돌린앙상블	2005	2008	3.?
분당	만돌린	아니마토만돌린앙상블	2009	2009	10.14
분당	만돌린	정자만돌린앙상블	2012	2012	7.19
성남	만돌린	성남만돌린오케스트라	-	2016	5. 11
분당	모듬북	모듬북을사랑하는모임	2005	2007	11.20
중원	모듬북	아침울타리	2002	2009	2.9
중원	모듬북	천동난타	2010	2010	11.30
중원	모듬북	드림난타	2012	2013	3. 23
분당	모듬북	두울림	2010	2013	4. 9
성남	모듬북	한울림난타	2017	2017	5. 10
분당	목관	성남목관앙상블	2005	2008	11.1

성남	무용	춤사랑무용단	1998	2015	4.11
성남	무용	다모글로벌교육문화협동조합	2016	2017	2. 1
분당	민요	경기민요 청실홍실	2005	2009	1.7
분당	민요	동네사람들	2007	-	-
중원	민요	우리소리터	2009	2009	7.24
중원	민요	소리친구회	2006	2010	6.?
분당	민요	소리사랑회	2004	2012	2.21
성남	민요	청사초롱국악단	-	2016	9. 7
성남	민요소리회	한가락국악예술단	2013	2015	9. 10
분당	바이올린	하늘소리에술단	2012	2013	6. 25
분당	밤벨	천사들의 하모니	2007	2012	4.24
분당	밴드	자율학습	2004	2007	5.16
분당	밴드	punos	1999	2007	6.12
분당	밴드	그룹 LH밴드	1997	2009	8.24
분당	밴드	성남시공무원밴드 사우스캐슬	2004	2009	-
분당	밴드	음악공간	2010	2010	6.3
수정	밴드	RED	2010	-	-
성남	밴드	메아리뮤직밴드	2013	2013	11. 26
성남	밴드	황병진팝스밴드	2013	2015	4.11
성남	밴드	성남뮤젤밴드	2015	2015	9. 10
성남	밴드	샘트론밴드	2011	2016	6. 8
성남	밴드	웰컴밴드	2016	2017	3. 11
성남	밴드	뮤직러스	2017	2017	10. 11
중원	밸리댄스	박제인한국밸리댄스	2008	2010	7.23
수정	밸리댄스	사하라밸리 나라사랑댄스	2009	-	-
성남	밸리댄스	카밀라 폴&밸리댄스	2013	2014	5. 30
분당	블루그래스	블루마운틴 보이즈	2003	2007	5.18
분당	블루그래스	한국블루그래스음악클럽	2006	2007	6.15
분당	색소폰	윈드매니아	2006	2007	5.16
분당	색소폰	늘푸른색소폰앙상블	2005	2007	6.15
분당	색소폰	분당색소폰클럽	2003	2007	6.15
분당	색소폰	해피색소폰동호회	2007	2007	11.5
분당	색소폰	풀잎소리	2005	2008	1.21
중원	색소폰	신구윈드색소폰동호회	2007	2008	9.10
분당	색소폰	조이색소폰	2009	2009	7.20
중원	색소폰	성남다비드색소폰동호회	2005	2009	9.8

분당	색소폰	분당소리사랑색소폰동호회	2006	2009	11.3
분당	색소폰	하모니색소폰	2006	2009	7.?
분당	색소폰	올뮤직동호회	2006	2010	4.9
분당	색소폰	정색소폰	2010		
분당	색소폰	폴시티앙상블	2010	2010	4.?
수정	색소폰	소윤사랑방색소폰	2012	2012	10.30
성남	색소폰	La Petite Musique	2013	2013	11.26
성남	색소폰	슈퍼윈드앙상블	2013	2014	5.30
성남	색소폰	버디색소폰앙상블	2008	2015	5.7
성남	색소폰	해피앤뮤직	2011	2015	9.10
성남	색소폰	소리원색소폰클럽	2015	2016	8.9
성남	색소폰	소리향기	2005	2016	9.7
분당	설장구	태평설장구패	2012	2013	4.9
분당	실내악	i음악마을	2006	2010	11.3
분당	실내악	감스트링	2009	2011	3.10
분당	실내악	분당챔버오케스트라	1996	-	-
성남	실내악	유앤아이	2015	2015	6.18
분당	아카펠라	하이파이브	2009	2009	9.2
분당	아코디언	성남아코디언동호회	2008	2008	-
분당	아코디언	분당아코동호회	2014	2016	7.6
중원	악기동호회	성남시 버들피리 음악 봉사단	2010	2012	10.30
성남	앙상블	프렌들리앙상블	2008	2015	3.12
성남	앙상블	앙상블라	2015	2016	01.28
성남	앙상블	분당우쿨렐레앙상블	2012	2016	2.24
성남	앙상블	앙상블더레브	2016	2016	2.24
성남	여성중창	주향기합창단	1998	2009	11.12
성남	여성합창	단미합창단	2016	2016	12.7
	블루그래스	한국블루그래스음악클럽	2006	2007	6.15
수정	연주	뮤플러스밴드	2011	2012	10
수정	오카리나	쥬블리오카리나앙상블	2011	2012	3.27
성남	오카리나	오카리나성남마을	2005	2014	02.18
성남	오카리나	드림인오카	2012	2015	3.12
분당	오케스트라	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2008	2012	3.27
수정	오케스트라	성남중앙청소년오케스트라	2012	2012	6.26
분당	오케스트라	분당청소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08	2013	3.23
분당	오케스트라	마제스틱청소년오케스트라	-	2013	3.23
분당	오케스트라	글로벌리더청소년오케스트라	2011	2013	3.23

성남	오케스트라	베누스토분당오케스트라	2009	2013	11. 26
분당	요들송	분당요들클럽	2008	2008	1.21
성남	우쿨렐레	라온제나	2012	2014	5. 30
중원	우쿨렐레	함성	2002	2007	5.18
분당	우크렐레	점핑플리즈	2011	2012	3.27
분당	워십	샤론클럽	2005	2007	5.18
분당	장고	승승장구	2012	2013	5. 14
성남	정악	가악풍류회	2002	2008	11. 19
중원	중창단	평생산노래중창단	2008	2012	11. 23
성남	중창단	이구동성	2014	2014	5. 30
분당	첼로	첼로포니아	2006	2011	2.17
성남	치어리딩	SPIRAL	2014	2016	6. 8
분당	클래식	스마일 뮤직 클럽	2009	2010	2.24
분당	클래식기타	기타애락	2011	-	-
분당	클래식기타	로스아미고스기타합주단	1998	2007	5.19
분당	클래식기타	로망스기타합주단	2004	2007	6.12
분당	클래식기타	알함브라기타양상블	2008	-	-
분당	클래식기타	세실기타합주단	2010	2013	5. 28
성남	타악 및 관악	도프양상블	2013	2013	11. 26
성남	통기타	통클	-	-	-
성남	통기타	사랑방팝양상블	2014	2015	7. 9
성남	통기타	해피핑거스	2012	2015	12. 10
수정	판소리	무정세월	2007	2013	4. 9
분당	팬플룻연주	풀양상블	2006	2013	9. 24
성남	팬플룻	쥬블리주니어	2010	2014	1. 7
분당	포크기타	어깨동무	2010	2012	2.21
분당	포크기타	고은소리	2005	2010	2.8
분당	포크기타	여섯줄사랑	2004	2007	5.18
중원	포크기타	포엠송	1986	2008	10.27
중원	포크기타	흰여울	2008	2011	1.7
분당	포크기타	기타홀릭	2010	2011	2.16
성남	포크기타	사랑나눔하모니	2010	2017	2. 1
성남	포크기타	통마당놀이터	2013	2017	2. 1
성남	포크기타	기타산책	2016	2017	2. 8
성남	포크기타	아스피린	2017	2017	6. 7
성남	포크기타	에코하모니밴드	2017	2017	7. 5
성남	포크기타	도바기통기타동아리	2017	2017	7. 5

성남	포크기타	바람과구름	2017	2017	9. 6
분당	포크댄스	호도에 포크댄스 클럽	2010	-	-
성남	풍물	풍물굿패 우리마당	1995	2007	5.15
수정	풍물	풍물굿패 두령	2001	2007	5.18
분당	풍물	서현풍물패	2005	2007	6.15
수정	풍물	풍물패 터줏	2005	2007	6.15
분당	풍물	풍물공동체Network	2006	2007	6.22
분당	풍물	소리샘	2002	2013	4. 9
분당	퓨전국악	천향국악단	2006	2013	3. 23
성남	퓨전국악	국악양상블그랑	2014	2015	3.12
분당	플루트	보네르플루트오케스트라	2003	2007	6.15
분당	플루트	에듀플루트윈드오케스트라	1997	2007	12.21
분당	플룻	The Golden Age플룻오케스트라	2013	2013	11. 26
성남	플룻양상블	원플룻양상블	2012	2015	7. 9
분당	피아노	스뽀일러	2009	2009	11.6
분당	한국무용	하모니무용단	2008	-	-
분당	한국무용	우리소리예술단	2011	-	-
중원	한국무용	김영자민속예술단	2003	2009	11.18
분당	한국무용	이매 우리춤	2004	2011	1.19
수정	한국무용	한울림무용단	2013	2016	7. 6
성남	한국무용	전통춤경기교방	2009	2016	8. 9
수정	합창	을지Rainbow합창단	2007	2008	6.12
분당	합창	이투스마스터코랄	1998	2008	9.2
분당	합창	씨밀레콰이어	2010	-	-
중원	합창	비전콰이어	2009	2012	8.2
분당	합창	한신유스콰이어작은물소리	2012	2013	3. 23
분당	합창	성남시장애인합창단	2012	2013	5. 14
분당	합창	원음합창단	2000	재활동	2012.1.9
성남	합창	아주소녀소녀합창단	1992	2014	5. 30
성남	합창	고령친화종합체험관시니어합창단	2012	2015	1.13
성남	해금,플룻	올레	2015	2016	11.2
성남	혼성합창	사랑방합창단	2013	2015	3.12
성남	홀라춤	뉴알로하	2015	2016	9. 7

2. 전시 분야 동아리 (43개)

지역	장르	클럽명	창립년도	가입년도	가입일
수정	신문지공예	수공예친구들	2004	2008	4.?
분당	공예	Art Space	2013	2013	5. 14
성남	공예	MAKEGROW	2013	2014	5. 30
성남	공예	provenio211	2016	2016	8. 9
성남	금속공예	The Ring	2017	2017	8. 2
성남	넙킨공예	넙킨&토탈공예	2017	2017	4. 7
분당	도예	카르소도예	2005	2013	9. 24
성남	도예	퓨어소울	-	-	-
분당	도자기	토향	2013	2013	5.14
분당	민화	분당민화	2000	2013	7. 23
성남	민화	바림(민화동아리)	2013	2014	11.11
성남	사진	분사랑사진클럽		2014	11.11
수정	사진	쥬인세상	2004	2007	6.22
성남	사진	포토저널성남	2012	2014	11.11
성남	생활도자기	알파토	2015	2016	4. 6
수정	서예	수묵향기	2006	2007	8.28
중원	섬유공예	정림규방공예	2013	2013	7. 23
성남	수공예	행복한수공예	2014	2015	1.13
분당	수채화	예다움	2007	2007	10.2
분당	수채화	아름아띠	2008	2009	3.?
분당	수채화	하늘빛아뜰리에	2009	2009	7.6
분당	수채화	늘미랑	2007	2009	9.4
분당	수채화	분당수채화가회	2000	2009	10.6
분당	수채화	수선화	2012	2012	8.22
중원	수채화	아따피	2011	2014	5. 30
성남	수채화	아르쉬	2016	2017	6. 7
중원	아크릴	도화지애	2010	2011	1.25
성남	아트플라워	꽃다방	2016	2016	5. 11
성남	전통공예	경록지승연구보존회	2015	2016	9. 7
성남	종기접기	수정회	2017	2017	9. 6
성남	캘리그래피	캘리에	2015	2015	9. 10
분당	크로키	분당 '해' 드로잉	2007	2007	12.21
성남	한지공예	한지누리	2015	2016	9. 7
분당	한지공예	한뭇 한지공예	2000	2008	7.6
분당	한지공예	오방지회	2009	2011	2.11

중원	회화	다사랑회	2012	2013	6. 25
중원	회화	늘그림	2006	2014	5. 30
성남	회화	노블아카데미	2014	2015	4.11
성남	회화	The-풍경회	2009	2015	9. 10
성남	회화	하나로	2011	2016	6. 8
성남	회화	아따미	2017	2017	2. 1
성남	-	블룸	2015	2015	4.11
성남	-	푸르지오그랑블미술동아리	2014	2015	9. 10

3. 종합장르 분야 동아리 (15개)

지역	장르	클럽명	창립년도	가입년도	가입일
중원	-	함께 여는 청소년 학교	-	2010	3.15
분당	교육을 통한 마을공동체	책이랑남남	2008	2009	2.9
중원	댄스	쁘니역사	2005	2007	6.15
분당	독서미술	해동문인협회(성남지부)	1992	2007	5.15
분당	동화구연	성남탄천문학	2003	2007	6.8
분당	목소리공연	재미나는 시낭송	2009	2009	12.15
분당	문학	성남분당예술치료협회	2012	2013	5.14
분당	문학	아름다운인생학교	2013	2013	9. 24
성남	문학	전래놀이사랑하는모임	2014	2015	1.13
분당	시낭송	분당사랑A&C	2008	2013	3. 23
성남	심리상담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2010	-	-
성남	역사기행	BOOK나라스케치북스	2014	2015	3.12
성남	전래놀이문화	트리니티	2015	2015	3.12
성남	종합	산성문학	2013	2015	4.11
성남	-	소리팩토리	2016	2016	9. 7

2017 사랑방문화클럽의 자랑스러운 일꾼들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희일

부위원장 강지숙, 정동주

기획팀장 곽윤부

운영위원 강성상, 김도연, 김말숙, 김진숙, 박선희, 배종환, 신민정, 신성봉,
우승옥, 이병석, 장종원, 제갑정, 최일주, 홍선희